

# 한국 YWCA

2022년 3·4월호  
MAR · APR Vol.577

## 특집 한국YWCA 창립 100주년

한국YWCA 100주년 기념식  
사진으로 보는 한국YWCA100주년  
한국 YWCA 100주년 비전문

## 시민사회와 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이대남

##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 시대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 청년토크

그해 우리는, 지금 우리는



# “2022년 한국YWCA100주년 이렇게 펼쳐집니다.”



<b>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백과 성찰. Y(Young), W(Women), C(Christian), A(Association) 주제별 핵심가치와 방향성 키워드 논의</li> <li>한국YWCA 100주년 인비저닝 워크숍 개최</li> </ul>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국YWCA 비전 수립</li> </ul>
<b>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념예배</li> <li>기념식</li> <li>기념특강</li> </ul>	4월 20일(수) 14: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립 100주년 의미와 비전 선포</li> <li>한국YWCA 100주년 대사화적 알림</li> </ul>
<b>한국YWCA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WCA 100주년, 새로운 100년에 대한 감사</li> <li>한국YWCA 100년을 만들어온 YWCA 회원 시상</li> </ul>	11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100주년 기념제를 감사로 마무리</li> <li>한국YWCA 리더십, 사람들과 함께 해온 역사 알림</li> </ul>
<b>한국YWCA 100주년 기념 여성평화포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WCA 평화운동의 의미와 성과</li> <li>한국사회와 YWCA 평화운동의 의미 고찰</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 평화운동 의미와 성과 대사화적 공유</li> </ul>
<b>한국YWCA 100주년 기념 화보집 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WCA 100년 화보집 발간</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 100주년 역사 공유</li> </ul>
<b>한국YWCA 100주년 여성평화순례-한리에서 백두까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지역, 디아스포라 여성 협력 교류의 장</li> <li>백두산 등반</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평화국내외 교류와 연대 강화</li> <li>평화통일외사 확산</li> </ul>
<b>한국YWCA 100주년 기념 YWCA 역사포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WCA 초기 역사 조망</li> <li>한국YWCA 역사적 성찰과 고백</li> <li>한국사회와 YWCA의 역할</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 초기 친일 역사 정리와 해석</li> </ul>
<b>한국YWCA 100주년 기념 Y-틴 전국대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 100년 기념 청소년운동 비전 공유</li> </ul>	8월 30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 100년 이후 청소년운동 비전 선포</li> </ul>
<b>한국YWCA 100주년 기념 청년포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WCA 청년운동의 의미</li> <li>새로운 100년, 청년운동 방향 모색</li> </ul>	9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 청년운동 의미와 비전 공유</li> </ul>
<b>한국YWCA 100주년 기념 역사전시관, 채플실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오프라인 자료관 운영</li> <li>특별전시관운영</li> <li>채플실 운영</li> </ul>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Y 100주년 활동과 운동 의미 홍보</li> <li>한국Y 기록정신 공유</li> </ul>
<b>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공모(스타트업 챌린지, 공간기반 프로젝트, 청년예술가, 회원Y 참여프로젝트) 선정 지원과 모니터링</li> </ul>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프로젝트 지원(1억원 모금)</li> <li>Y청년 운동성 증진</li> <li>외부 청년 Y참여 경로 마련</li> </ul>
<b>한국YWCA 100주년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글로벌리더와의 만남(사람책방)</li> <li>아시아 글로벌네트워크</li> <li>제66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파견</li> <li>세계교회협의회(WCC) 11차 총회 파견</li> <li>청년참여단 활동</li> </ul>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청년 소통체계 구축</li> <li>청년글로벌 리더 지원과 양성</li> <li>대학·청년Y 활동 홍보</li> </ul>

## 2022.3·4 한국YWCA



**표지이야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하여 10개 여성평화단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추구하는 여성평화집회를 진행했다.  
“전쟁 멈춰, 우크라이나와 함께”

### 2022년 5·6월 주요일정

5월 2일	5월 월례기도회
5월 4일	제2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기후위기와 여성
5월 5일	2022~2023 청년이사 교육: YWCA 기본이해
5월 12일	제 3차 청년위원회
5월 26일	신임사무총장교육
5월 28일	제2차 북콘서트_사람책방
6월 2일	6월 월례기도회
6월 8일	제3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평화
6월 10일	아시아YWCA 지역회의

### 제 58권 제 2호 통권 577호

2022년 5월 6일 발행(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 김은주 최수신나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 조은지
- 05 말씀묵상 | 이진아

### 특집 한국YWCA 창립 100주년

- 06 한국YWCA 100주년 기념식
- 08 사진으로 보는 한국YWCA100주년
- 10 한국YWCA 100주년 비전문

### 기획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 12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에너지 전환 | 이유진
- 15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에너지 전환 | 고명정, 백수미
- 18 시민사회와 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이대남 | 김은주
- 20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 시대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 이윤숙
- 22 청년토크 그해 우리는, 지금 우리는 | 대학·청년YWCA
- 24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파친코,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역사 | 김선영
- 26 YWCA 변화와 혁신7 비영리 규제 역할과 YWCA의 역할 | 이희숙

- 28 이달의 현장① 후쿠시마 11주기 전국동시다발 탈핵기후 캠페인
- 30 이달의 현장② 3.8 여성의날 우크라이나 전쟁반대 여성평화 시위
- 32 이달의 현장③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66) | 김륜희, 고하은
- 35 이달의 현장④ 여가부폐지 YWCA 대응 | 김예지
- 38 이달의 현장⑤ 씽크머니 프로그램 | 홍수진
- 40 교회와 함께 WCC 11차 총회 한국 동행모임 | 최규희
- 42 로컬프렌들리 이야기6 Y-지역 청년 커뮤니티 | 김수진

### 한국YWCA 성명서

- 45 한국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라!
- 46 기후위기가독교비상행동 1주년 기자회견문 기후정의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 47 ‘여성가족부폐지공약’ 대응 범여성계 공동선언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하라!
- 48 2022 세계군축의날 기자회견문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 49 연합회 소식
- 55 연합회 모금 현황
- 58 회원YWCA 소식
- 70 (주)대상 광고(주)

# ‘청년성’ 회복에 나선 YWCA 100주년



조은지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부회장

한국YWCA의 시작이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였듯이 여성, 기독교, 청년, 연합은 YWCA의 창립 정신이며, 100년의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식민 압제와 여성 억압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을 모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며, 사회 속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운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때로는 불의와 부조리에 침묵했고, 창립 초기의 청년성이 약해졌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창립 100주년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잃은 ‘청년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

2022년 4월 20일 ‘YWCA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된 100주년 비전문 중 “Y, Young”은 수평, 깨어있음, 변화, 극복의 키워드로, ‘우리는 청년이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깨어있는 시대 의식으로 연대한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나이, 배경, 경력의 위계에서 자유로우며 수평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건설한다.’로 수립되었다.

비전문을 수립할 당시, 많은 청년이 모여 YWCA는 본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함께 나눴었다. 오가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았다. 청년들에게 YWCA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이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청년들이 나이, 배경, 경력의 위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더 확대해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변화된 YWCA의 구조 속에는 청년의 입지가 전보다 확대되었다. 새롭게 생긴 청년 부회장의 자리로 YWCA의 전

반적인 운영에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인 법인이사회 속에 청년 법인회사가 함께하여 YWCA의 현재와 미래를 청년과 함께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YWCA의 운동과 전체적인 구조 속에 청년의 자리를 확대시켜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청년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청년과 모든 회원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회원들에게 많은 의미와 용기를 북돋고 있으며, 청년 회원들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청년법인회사가 모인 ‘청년위원회’는 청년회원들을 대표하는 법인이사라는 점을 명심하고 YWCA 청년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고 나누며 함께 여성 리더십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지금의 청년의 입지를 지키고, 더 많은 청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세운 비전문의 현실화를 노력하고 있다.

새롭게 생긴 청년의 자리는 현재 어떤 이들에게는 부족해보일 수 있으나 100주년인 오늘날 ‘청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며, 향후 200년, 300년의 한국YWCA를 이끄는 주역들이 될 것이라 믿는다. 지금의 이 변화는 모든 회원 YWCA의 노력임을 잊지 않고,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함으로 항상 사랑을 베풀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YWCA 안에서 모든 세대가 아울러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 YWCA의 창립정신을 전하여 지속적이고 자주적으로 이어가는 YWCA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이제부터 다시

요한복음 8장 1~11절



이진아 목사  
나들목일산교회 담임목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1절의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법에 따르면 간음한 두 남녀는 모두 함께 사형에 처하라 했으나, 가부장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범죄 현장에 같이 있던 남자는 사라진 채 여성만 끌려 나왔습니다.

여자의 모습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은 누군가의 현실이며 현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지난 100년, 아니 그 이전부터 인권, 민주, 생명, 평화를 외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열사와 이름 없는 선배들의 수많은 희생 가운데 받은 십자가를 닮은 아픈 선물입니다.

이 시간 속에 Y가 있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상식이던 시절에 Y를 조직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인 여성 운동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도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성혐오가 만연하고 여가부 폐지 등 여성 인권이 심각한 퇴행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본문을 끌려 나온 여자에게 즉시 돌을 던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자들의 속셈을 간파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저들의 허를 찌르며 분노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YWCA의 사명은 강자들의 돌에 맞설 바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고 죄와 위선의 민낯을 들추고 믿음으로 정의의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살벌한 현장에서 여자의 두려움을 공감하시고 위태로운 처지와 수평을 맞춰 대처하신 예수님은 차별에 기반한 가부장적 권위 구조가 하나님 나라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이렇게 몸소 가

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운동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마땅합니다. YWCA 안에서부터 공감에 기초한 연대와 평등을 실천하며, 약자들 곁에서 안전과 보호의 버팀목이 되는 일에 이전보다 더 용기를 내서 저항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특별히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오염되어 청년 세대의 신뢰를 잃은 한국 기독교 안에 예수의 본을 실천하는 YWCA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11절의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되물으셨고, 한 사람도 없다는 여자의 대답에 이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서는 처벌과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던 여자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의 용기과 소망을 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100주년을 맞은 YWCA가 추구하는 생명이 흠없고 티없는 완전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민족 앞에, 무엇보다 주님 앞에 부족했지만,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백할 때 회복과 갱신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와 기회가 지난 Y의 100년을 만들었고, 앞으로 100년도 만들 것입니다. 이번 100주년을 준비하며 지난 과거를 돌아본 우리의 고백과 성찰,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세운 비전문과 미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제부터 다시’의 계기와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식 100년을 돌아보고, 다시 100년을 꿈꾸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맞아 4월 20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YWCA는 지난해부터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성찰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주제로 100주년 기념을 준비해왔고, 100주년 엠블럼과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를 100주년 슬로건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현장에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YWCA 회원들이 시청하였으며,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100주년 기념식은 감사예배, 기념식, 기념특강의 순서로

진행됐다.

### ‘이제부터 다시’ 로 일어서다

‘환대의 공간, 축제의 시간’을 주제로 한 감사예배는 ‘다양한 생명의 존중(colorful herstory)’, ‘연대를 통한 고난의 극복(connect herstory)’, ‘실험과 배움을 통한 성장(creative herstory)’을 담은 역사적 성찰과 더불어, 100주년을 함께 맞는 서울 YWCA와 광주YWCA의 찬양 그리고 회원YWCA에서 100명의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한 영상 찬양(Virtual Choir)이 울려 퍼졌다.



이진아 목사(나들목일산교회)는 ‘이제부터 다시’라는 설교를 통해 “100주년을 준비하며 지난 과거를 돌아본 우리의 고백과 성찰,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세운 비전과 미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제부터 다시’의 계기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기념식 행사는 ‘Part 1.여정: 함께 한 100년’ ‘Part 2.다함께 축제: 함께 나누는 100년의 기쁨과 감사’ ‘Part 3.향해: 함께 할 100년, 변화를 향해’의 3부로 진행됐다.

### 여정과 축제: 함께 나누는 100년의 기쁨과 감사

1부 ‘여정’ 순서에서는 ‘함께 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김숙희, 원영희, 서다미 공동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한국YWCA의 창립100주년 기념사를 전했다. 백범 김구기념관 현장 참석자 90여 명과 각 지역의 회원 YWCA 회원들이 온라인 줌으로 접속하여 화면을 통해 인사를 나눴다. 내빈을 포함해 약 130여 명이 온라인 ZOOM에 접속했으며, 실시간 유튜브 중계는 7백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세계 각국의 회원들은 유튜브 생중계에 댓글로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2부 ‘다함께 축제’ 순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 리제크 세계YWCA 회장, 송인동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김학중 CBS 이사장, 세계 109개국 YWCA 회원과 한국 YWCA 회원들이 보내온 축하영상이 송출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가 연결돼 함께하는 장이 되었다.



### 향해: 함께할 100년, 변화를 향해

3부 ‘향해’ 순서에서는 ‘함께 할 100년, 변화를 향해’ 나 갈 회원들이 수 개월간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한국YWCA 100주년 비전물>을 낭독했다. 함께 한 100년의 기쁨과 감사, 함께 할 100년의 변화를 향해 가는 YWCA의 비전을 담아내었다. 한국YWCA는 창립 100주년 비전 선포에는 Y,W,C,A의 키워드별로 실천과제를 천명하였다. 비전선언문의 말미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YWCA의 목적과 비전이 회원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며 연대하고 환대가 가득 찬 여정이 될 것”이라는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 후에는 ‘한국YWCA 100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기록 활용법’을 주제로 백희성 건축가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기념특강에서 백희성 건축가(KEAB건축 대표)는 “연합회가 그동안의 경험, 깨달은 것들,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은 물론 부정적인 것들, 편견, 잊혀가는 역사까지도 기록하며 사회와 긍정적으로 공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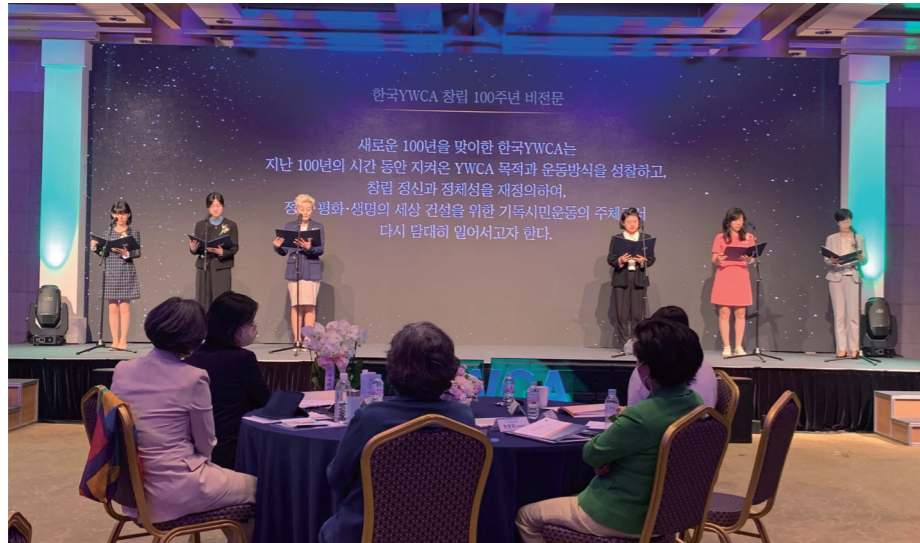
한국YWCA는 기념식 당일 행사로 그치지 않고 올 한해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YWCA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조명하는 포럼이 상시로 열린다. 또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향해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프로젝트인 “흥청망청: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각 팀 별로 1백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다양하게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흥청망청은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 지원금을 후원할 수 있다.

# 사진으로 보는 100주년 기념식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맞아 4월 20일 열린 10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여파로 온라인에서 진행되었지만 온라인 생중계로 그 어느 때보다 전국의 회원과 전 세계가 연결돼 함께하는 장이 되었다. 기념식은 감사예배, 기념식, 기념특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 한국YWCA창립 100주년 비전문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지켜온 YWCA 목적과 운동방식을 성찰하고,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정의·평화·생명의 세상 건설을 위한 기독교시민운동의 주체로서 다시 담대히 일어서고자 한다.

1922년 이 땅의 기독교청년여성들은 식민 압제와 여성 억압의 상황에서 절규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며 민족의 발전과 전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기관으로서 YWCA를 선택하고 조선 여성의 이름으로 주체적으로 조선YWCA를 창립했다.

오늘날까지 한국YWCA는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시민운동 역사를 이어가며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창립 초기의 청년성을 잃었고, 조직의 확장이

운동성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때로는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 침묵했고, 앞드려 기도하면서 담대히 일어서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한다.

한국YWCA의 새로운 100년은 청년이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하며, 편견과 차별을 깨고 생명살림을 실천하는 주체적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을 지역으로부터 펼쳐나가며, 건강하고 선도적인 조직 개혁으로 시민운동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시작된다.

한국YWCA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YWCA 목적과 비전이 회원들의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연대와 환대로 가득 찬 여정이 될 것이다. 



Young

## 수평, 깨어있음, 변화, 극복

우리는 청년이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한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나이, 배경, 경력의 위계에서 자유로우며 수평적인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건설한다.



Women's

## 여성리더십, 성평등, 차별배제, 다양성

우리는 여성이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고,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천한다. 차별과 배제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외와 갈등을 깨고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상호이해와 공존의 문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룬다.



Christian

## 기후정의, 생명, 돌봄, 살림, 평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돌본다. 창조질서의 회복과 기후 정의를 이루는 생활과 제도를 만들고 생명살림을 실천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 다음세대의 도움 요청에 적극 응답하고 사회의 구성원과 대화하며 포용한다. 갈등과 분단, 전쟁과 폭력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담대히 전진하며 사회적 영성과 평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만들어간다.



Association

## 연대, 주체성,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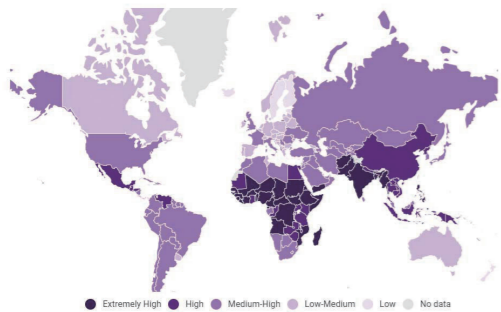
우리는 회원공동체다. YWCA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변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우리의 현장은 지역이다. 기독교시민운동단체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강화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한다. 시대의 변화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 비영리공익법인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난다.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운동을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기꺼이 담당한다.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한다.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에너지 전환

## | 이유진

YWCA RE100위원회 위원,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유니세프(UNICEF)는 지난해 어린이들이 기후위기 속에 처한 위험을 분석해 <어린이 기후위험 지수>를 발표했다. 세계 22억 명의 어린이 중에서 절반인 10억 명이 불볕더위, 홍수, 가뭄, 슈퍼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위험지수 1위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나이지리아 순이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어린이들이 위험지수가 높았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72위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111위였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우리나라 어린이들보다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했지만, 지금 전쟁 속에 있다.



유니세프 어린이 기후위험 지수 - 질을수록 위험지수가 높은 나라

## 세계 최고 원전 강국을 외치는 정부의 등장

전 세계가 혼돈을 맞이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일상에서 체감할 정도가 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있다.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에 이상이 생겨 천연가스는 물론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은 원자재 수급과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EU와 미국에서도 탄소중립은 뒷전이고 화석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EU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

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고 원전 강국을 외치는 정부가 들어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해 우리는 지구평균기온 1.5°C 이하 안정화를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 대비 40%를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 힘은 이것이 턱없이 높은 목표라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국제사회의 약속은 되돌이킬 수 없다.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원 비중을 보면 석탄 40%, LNG 26%, 원전 26%, 신재생 6%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비중은 2030년 석탄+LNG 40%, 원전 30~35%, 신재생 20%로 전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목표로 했다면, 이것을 줄여 대신 원전을 늘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원전 수명연장,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 10기 수출과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원전은 고리 2, 3, 4호기,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월성 2, 3, 4호기 총 10기에 달한다. 현장에서의 탈핵 운동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도 계획한 것처럼 원전을 쉽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기 내에 신규 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당장 10년 이내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신한울 3, 4호기를 짓는다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가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사에 걸리는 시간, 송전선로를 확보하는 시간 등

을 따지면 말이다. 오히려 수명연장은 지역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풀지 못한 고준위폐기물 숙제에, 국민의 힘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해온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애초에 답이 아닌 원전을 내세우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길 바쁜 우리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더 후퇴되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계획만 다섯 번째로 수립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심이 집중되다가, 막상 목표가 나오면 시들해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수립한 목표를 얼마나 실행에 옮기는가에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부족하나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때 부문별,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정부 차원에서 목표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행점검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 주요 부처들 이룰테면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을 만들 때, 국토부가 국토종합계획, 국가교통망 계획을 짤 때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법제화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기초 모두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지방기후위기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민관 협력구조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며,

온실가스감축 인지에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지역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고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딱딱한 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법이 있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해야 할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법을 실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시하고, 촉구할 수 있다.

탄소중립과 지역의 에너지 전환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가장 먼저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전반에서 부문별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방향은 지역에서 석탄,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지역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 2050년의 에너지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

그런데 자립률을 높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가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해보자. 세계 에너지시스템은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해 탈탄소화, 전기화, 분산화가 진행된다. 산업에너지의 전기화, 전기차, 전기난방, 전기농기계 등 전력화가 진행되면서 전기수요가 늘어난다.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충족하려면 곳곳에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이

1)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향 실시간으로 정보와 전기를 교환하면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지능형 전력망을 운영하려면 날씨 예측 시스템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발전량을 예측하고, 변동성 자원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저장장치를 활용하고, 전력-비전력 부문 간 결합을 통해 잉여전력을 열(P2H), 가스(P2G), 운송(V2G) 부문의 에너지와 결합해 필요한 경우 상호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를 운영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2050년 전력생산의 90%가 재생에너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70%를 차지한다.

지금까지의 전력생산 시스템은 원전, 석탄과 같은 대형발전소를 해안가에 짓고, 생산한 전기를 소비지까지 송전하는 시스템이었다. 특정 지역에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면서 환경 사회적 비용을 전가해왔다. 이제 우리가 사는 곳곳에 분산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수백~수천만 개의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들어오면,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수요가 같이 반응해주는 전력망 운영이 필요하다. 전력 피크 시기에, 소비를 줄이고, 전력생산이 많을 때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시스템이 나아가갈 방향은 지역 분산형 시스템이고, 재생에너지이고, 시민들이 전력망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은 지역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행동하는 에너지시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에너지전환(출처 : SBS 미래 포럼)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 운동에서 YWCA의 역할**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YWCA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YWCA는 언제나 그 시대가 가장 절박하고,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징하다. 가지 말아야 할 갈-원전과 석탄을 멈추고, 가야 할 길 - 지역에너지를 기반으로 하

는 지역에너지 자립을 이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YWCA는 지역 탈핵과 탈석탄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발전과 석탄을 하루 빨리 멈춰야 우리가 그나마 안전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감축 목표, 감축 실행이 작동하도록 지방정부 정책에 개입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시작하면 된다.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도 잘 뽑아야 하지만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도 중요하다. 광역과 기초지자체 의원 중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정치의 목표로 삼는 정치인들이 등장하면, 지역에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민 집단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녹색전환 10대 녹색전환 의제 (출처: SBS 미래 포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해 그림을 그려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가에 대한 가능성을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2월~4월에 걸쳐 17개 광역지자체의 시민들과 함께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만드는 일을 진행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슴 뛰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만큼 희망을 준비해야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YWCA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역과 우리를 살리는 일자리에 대해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희망의 크기를 키워가는 일도 시도해보면 좋겠다. 🌱

# 따로, 또 같이 : 기후위기대응과 지역에너지전환

한국YWCA연합회는 2022-2023년 전국중점운동인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국과 지역이 따로 또 같이 운동을 확산해나가고자 연 5회의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을 준비했다. 콜로키움은 전문가의 강의와 소그룹 토론으로 구성되며, 지역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와 청소년,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 전략 등을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콜로키움에는 사전에 신청한 49개 회원YWCA 및 연합회의 활동가 94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이 참가한다.

4월 6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제1차 콜로키움의 주제는 ‘기후위기대응과 지역에너지전환’으로, 조은영 부회장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연합회 시민운동국 최수산나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운동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이유진 RE100위원의 강의 후 특별히 이번 제1차 콜로키움은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권역별 상황에 적합한 지역특화운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특별 토론의 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시간에는 각 회원YWCA별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권역별로 시행할 구체적인 지선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콜로키움 이후 지선대응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회에서는 ‘6.1 지방선거 대응 YWCA 도협의회 정책수립 및 정책제안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각 도협의회에서는 콜로키움에서 논의한 바를 구체화하여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래는 제1차 콜로키움의 권역별 토론의 주요 지선대응 방안이다.

- ◆ 강원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5개 YWCA 공부모임 구성 및 워크숍 준비, 워크숍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제안
- ◆ 경기/인천 : 경기도 탄소중립 주민발의 제안, 기후위기대응

성인지예산제도 모니터링, 제로웨이스트 행동을 위한 지역별 실무자 TF팀 구성 후 지속적인 연대활동.

- ◆ 경기/서울 : 지자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 햇빛발전소 운동전개,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실행 시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 지속가능 소비나 자전거 도로 활성화 등 시민실천운동 확산
- ◆ 충청 : 핵발전소 공약철회 및 감시 운동전개, 분기별 에너지공론장을 마련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시적 소통의 장 활성화. 에너지전환 시민의신 확산 캠페인 전개.
- ◆ 경북 : 지자체 정책 모니터링,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운동전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식개선 활동 및 교육.
- ◆ 경남1 : 청소년 기후활동가 발굴뿐 아니라, Y부속시설 활성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 지원 개발.
- ◆ 경남2 : 기후위기-에너지 담당 부서(국) 설치 및 정책책임자(제2부시장) 배정 요구, 지방선거 의제 발굴, 선언, 정책 시행 모니터링, 시민대상 교육 진행.
- ◆ 전북 : 도단위의 학습구조 마련, 전북협의회 차원의 씨앗강사 교육과정 준비, 10월 기후인권행동의날 동시다발 캠페인 진행,
- ◆ 전남/제주 : 권역간 실무협의체 학습모임 진행, 지자체별 기후관련 예산배정 및 성인지적 관점의 탄소중립 평가 제안.

## 함께가는 '탈핵의 길'

**: 고명정**  
진주YWCA 사무총장

기후위기의 극단적인 사례가 많지만, 봄바람 훑날리는 이 계절을 뿌연게 뒤덮는 황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불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 4월 초에 만개하던 강변의 벚꽃은 4월이 되기도 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폭염, 무더위, 가뭄, 홍수, 태풍이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처럼 가까운 미래에 기근, 물부족, 해수면 상승, 극단적 날씨의 증가로 지구 전체에 파국적인 재앙이 생길 것이라는 위기감을 우리는 갖고 살아간다. 기후파국을 막기 위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45%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도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당선자의 '탈 탈핵'의지와 실천 행보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생명운동'을 제 1순위 운동으로 전개해온 한국YWCA와 52개 회원 Y의 탈핵세상을 향한 움직임이 더욱 발 빠르고 가열차게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전국의 YWCA가 함께 탈핵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전국, 광역별, 회원Y별, 개인별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이 지난 4월 6일 열렸다. 기후위기와 탈핵에 관하여 연일 일어나는 현안과 이슈를 알고 실천하는 여력이 부족하지만, 한국 Y의 중점운동에 대한 방향성과 회원Y 연대의 힘이 있는 한 우리 YWCA도, 나도 탈핵생명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금 뚝뚝 내딛을 수 있겠다는 의지와 실천전략이 세워진 귀한 첫 자리였다. 10여 년간 탈핵운동을 전개하면서 수 십 차례 들어도 매번 새로운 내용들을 전해주시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님의 강의에 또 한 번 놀라며, 강의 후 권역별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하였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자체별, 광역별 각 후보들에게 기후위기대응 의제 제안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대응전략을 실천해나갈 때 민관협력의 가교역할을 YWCA가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 회원들과 더불어 실천을 꾸준히 해나가며 지속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다. 전체 그룹에서 실천전략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내가 속한 경남2그룹의 제안을 정리해 본다.

먼저, 기후위기대응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여도 각 지자체에 기후, 환경, 에너지의 부서가 각각 있으므로 관점이 다르고 논의의 첫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통합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위기 관련 지자체 조례의 유무 자체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의 존재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전략과 피부에 와닿는 규정이 포함된 시민조례안을 만들어 제안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두 함께해야하지만, 특히 기성세대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마을단위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YWCA가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탈핵과 기후위기운동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세 번째로, YWCA에서 전국공통프로그램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청소년기후위기활동가양성과정'처럼 청(소)년 세대가 기후위기 시대 주축이 되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후관련 일자리 창출, YWCA기반의 기후위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곧 기후위기시대 청년일자리로 연결된다는 믿음과 경험이 쌓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4월에 시작하여 11월까지 이어지는 총 5차의 탈핵콜로키움, '탈핵의 길'을 함께 가는 전국의 참가자들과 함께하면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생각과 실천의 연대가 가능할 것이며, 그것을 속한 지역에서 잘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이후, YWCA 강원도협의회 워크숍

**: 백수미**  
속초YWCA 사무총장

지난 4월 6일(수) 제1차 콜로키움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로서 강원도협의회 구성원들의 부족한 지식과 탈핵기후생명운동의 적극적인 실천 운동 및 지자체 대응 전략들이 없었음을 통감하였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원도협의회에서는 긴급하게 사무총장 및 담당 실무자들의 탈핵기후생명운동에 대한 스터디를 하기로 하고 1차 워크숍을 계획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회장님들의 참여 요청으로 5월 19일(목) 2차 워크숍도 준비 중이다.

4월 19일(화) 10시30분 춘천YWCA에서 당일 참석이 곤란해진 원주를 제외하고 강릉·동해·속초·춘천의 사무총장과 탈핵기후생명운동 담당자들 총 8명이 모여 1차 워크숍을 시작했다. 1차 콜로키움에서의 당황했던 순간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짧은 인사를 서로 간에 마치고, 속초Y를 시작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의 현황을 발표하였다. 또, 연대기관이나 단체 활동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대응과 각 지역YWCA의 활동과 올해 진행했거나 계획한 사업이나 운동에 대해 나누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환경단체, 또는 장애인단체들과 연계하여 환경운동과 교육, 캠페인등을 하고 있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MOU를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했다. 속초와 강릉은 지자체 차원에서 수소차의 보급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수소충전소의 설치와 설치예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대응하고 있으며, 속초시는 태양광, 지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3월 속초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시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4월25일 공포된다. 또, 동해시는 동해YWCA 제안에 따라 올해 EM활성액 복합기 3대를 동해시에 설치하였다.

각 지역YWCA의 활동을 보니 Y운동으로 함께 하는 환경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강릉YWCA와 동해YWCA는 작년부터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꾸준히 환경운동을 홍보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인적자원 부족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강원도협의회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나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제로웨이스트운동을 적극 홍보 활동하기로 하였고, 회원들과 함께 플로깅운동을 꾸준히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삼척석탄화력발전소와 강릉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에 회원들의 참여 독려와 시위참가에 동참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매월 1회씩 온라인이나 대면을 통해 사무총장, 실무자 중심의 스터디를 만들어 탈핵기후생명운동에 대한 학습과 각 지역에서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실천하자는 의견에 다음달 19일(목)에 강원도협의회 탈핵기후생명운동 2차 워크숍에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탈핵기후생명운동에 대해 집중 강의를 듣고 지역 현안에 맞는 운동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는 어떤 정책제안을 할지 논의하던 중 보수 세력이 많은 강원지역에서,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후방향에 역행하는 분위기의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의 정책제안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정치적·행정적 부족함이 이야기되었고, 정책제안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결국 우리는 YWCA강원도협의회가 탈핵기후생명운동에 대한 지식을 더 쌓고 홍보하고 실천 운동함으로 지역사회에 환경운동실천기관으로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당위 목표로 삼기로 하고, 눈높이에 맞는 지속가능한 운동을 펼친 후에 그 눈높이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대안들을 찾기로 하였다. 

#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이대남>

| 김은주

연합회 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참 “괴이하고 이상한” 선거였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 이상의 단어를 찾기가 어렵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의 무지와 왜곡이 넘쳐났고 공동체의 미래가 아닌 “나를 위해” 뽑아달라는 구호가 온 SNS를 뒤덮었다. 기후 위기, 코비드 19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사회적 대전환을 요청하는 긴박한 현실들은 무시되고 사소화되었다.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의제와 대안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비호감이라는 정동만 남았다. “여성가족부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대변되는 젠더정치와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은 상식과 도를 넘어서 종북몰이를 능가하는 여성과 성평등, 페미니즘에 대한 마녀사냥이 득세했다.

## <이대남>의 공정에 희생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폐지” 공약(국민의힘)의 문제점은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근거의 천박함과 왜곡에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 조직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통폐합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했다. 여성부로 시작한 현재의 여성가족부도 정권에 따라 부침의 시간들을 겪어왔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미래가족부로 하든 가족복지부로 하든 아니면 기능별로 쪼개 붙이기를 해서 없애버리든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약자료집에 당당하게 올려놓았던 “청년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사명을 다한” 여성가족부의 폐지. 이 공약이 제시하는 논거는 단 두 가지, 청년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거의 반지성주의에 가까운 무지와 천박함이 그대로 드러난, 논거라기보다 망언에 가깝다. 여성가족부의 통폐합

에 대한 논란은 새 정부의 수립 시기마다 있어왔지만, 그때 논란의 축은 복지 관련 기능의 중복이나 정책의 효율성, 특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 기구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것이었지, 이런 민망하기 짝이 없는 망언은 아니었다.

세계 성 격차지수 최하위, 남녀임금격차 세계 1위, 전대미문의 텔레그램번방사건 등 모든 객관적 자료들이 세계7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성에게 차별적이고 폭력적이고 불평등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는 이 반지성주의적인 무지함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아니라 단지 20대 남성인 <이대남>의 표를 잡겠다는 비겁한 선거 전략과 정치가 문제인 것이다. 20대 청년 남성들의 표를 잡아보겠다고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로 오독, 왜곡하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편승하고 침묵한 기성정치권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참사이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는 성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성차별 철폐이지 공정이 아니다. 단순히 성적순이나 능력에 따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싶어도 여성이기에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세상, 심지어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차별적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존재한다.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공정과 능력주의는 차별을 정당화할 뿐이다.

## <이대남>의 뒷에 걸린 젠더정치

20대 남성을 지칭하는 일명 <이대남>은 이 괴이한 선거를 설명해줄 열쇠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은 오세훈 후보에게 72.6%의 몰

표를 던졌다. 그 이후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대남>을 대변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대선과정에서는 <이대남>프레임에 편승한 성별 갈라치기가 공공연한 선거전략으로 등장하였다. 반여성주의적 말과 행보들이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여성정치인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여성단체들은 정책이나 공약 검증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이대남>의 백래시(반발) 대응으로 소진해버렸다.

<이대남>과 관련된 말과 글들을 종합해보면 대충 다음과 같은 서사가 완성된다. 20대 남성이 여성과 여성주의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담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성평등이 실현됐고 여성이 받는 차별은 오직 개인적인 것, 즉 능력이 없어 당하는 것일 뿐 구조적 차별은 없다. 이런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뿐 아니라 반현실적인 인식하에서 여성과 여성주의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주장은 여성 우월적 특권에 대한 요구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이대남>은 여성주의의 피해자이며,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안티페미는 공정과 동일한 의미로 정당화한다. 결국 <이대남>은 페미니즘의 피해자이자 공정의 담지자로 현현한다.

사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나 나눌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대선 후보들의 <이대남>의 표심 잡기 전략으로 포섭되면서 선거판을 역대급 비호감이자 마녀사냥터로 만들어 버렸다. 정상적인 정치였다면 이런 왜곡된 인식을 비판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상식은 뒤집어졌다. <이대남>의 망언에 편승했고 이를 통해 적대적 젠더갈등과 혐오정치를 조장했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공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은폐시키고, 불평등한 구조 위에 군림하는 공정은 차별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선거가 끝난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이다.


## <이대남>의 왜곡된 젠더정치

그런데 <이대남>의 안티페미니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라는 이 기이한 오독과 왜곡현상을 단지 무지의 소치나 득표 전략으로 조작된 프레임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엔 정말

기이한 구석이 있다. 이를 말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대에 걸쳐 민주시민교육과 양성평등의식교육을 제대로 받은 세대가 이들 20대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며,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된다는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배우고 익힌 최초의 세대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나름 학교 안에서 성평등을 실천하고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남자 회장, 여자 부회장이라는 기성세대의 위계적 질서를 해체하고 여자 회장과 남자 회장을 따로 선출하거나 득표순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했다.

그런 세대에게서 이런 기이한,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로 오독하고 페미니즘의 피해자로서 남성을 서사화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안티페미니즘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작게나마 성평등을 경험한 세대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더 기이한 일이다. 무지하거나 미성숙해서 오답을 진심으로 정답이라 우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교육 안에서 학습하고 경험한 것은 젠더로서 남성이지 기성세대의 남성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기준인 남성이 아니다. 남성과 남성적인 것을 보편적 인간과 보편적 기준으로 여기고 젠더문제를 여성문제로 치환하는 기성 남성세대와 달리, 남성도 인간의 하위단위인 다양한 젠더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점에서 <이대남>의 이 기이한 정치를 젠더로서의 남성의 이익, 즉 불평등한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지키기 위한 남성들의 젠더정치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젠더정치는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대남>의 젠더정치는 분명 왜곡됐다. 그러나 <이대남>의 서사가 가부장적 질서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면 이 혼돈과 왜곡은 새로운 시대의 잉태를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어찌 보면 20대 청년세대의 여성과 남성들에게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본격적인 젠더정치가 시작된 것일지 모르겠다. 

# 기후위기 시대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은 ‘장애인 혐오’의 현실을 환기시키는 상황 속에 그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

수십년 간 장애인 이동의 권리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 싸워왔던 장애인 운동 단체들은 어렵게 쟁취한 그 성과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거리로 나섰다. 그들이 택한 것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동료시민이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었다. 출근길 대란이 예상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택한 절박한 이들의 싸움을 두고, 새 정부의 여당이 될 국민의 힘 대표는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로 규정하며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까지 말하며 공권력의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앞으로 이 나라의 중요 정책이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그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으로 폄하하기까지 했다.

차기 여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이런 발언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고, 장애인을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잡는 강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장애인 혐오를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확산시켜버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현

실과 주장이 무엇인지, 장애인을 동료시민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환기하게 만들었다.

### 일상화된 재난과 장애

현실로 무섭게 닥쳐온 기후위기는 전세계의 폭염과 가뭄, 산불, 태풍과 홍수, 쓰나미 등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불러일으켰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이 발표한 2020년 세계 재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세계 자연재해는 총 7,300여 건으로, 사상자는 123만여 명의 사상자 3,400여조 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뿐 아니라 각종 교통사고와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수많은 혐오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언제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기후위기는 노동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동하고, 사람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지닌 고군분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재난이 언제나 소수자와 약자들을 더욱 위협에 처하게 하고 그 위협으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다.

쓰나미와 홍수가 닥치면 장애인들은 그 위협으로 벗어나기 위해 신속하게 이동하기 어렵다. 장애인을 동료시민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피난체계는 장애인을 더욱더 위협으로 내몬다. 실제 최

근 빈번히 일어나는 산불 재난 뉴스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기후위기로 인해 더 빈번해진 재난 상황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데 여러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의 대부분은 비장애인 중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들 스스로 재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위험도를 인식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기다리다 고립된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또한 미흡하다. 시설 장애인에 대한 재난 교육만 아니라 수많은 재가 장애인들이 이 빈번한 기후위기의 재난 위협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교육받을 기회가 너무나도 적은 것이 현실이다.

### 에코에이블리즘을 넘어서

기후위기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수단 가지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탄소배출을 없애기 위해 전기차를 타고, 더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소소한 노력들도 다 시도된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시도들조차도 장애인이 참여하고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기 위해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난한 이동권 투쟁을 벌여온 장애인들이 이 지극히 비장애인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어떻게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참여할 수 있을까.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려 해도 마찬가지로이다.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장애인 접근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돼서 충전기의 위치가 너무 높고 장소도 협소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소소한 실천으로 제기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운동은 한편으로 장애인의 음료 마시기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여기서 장애인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되지 못한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실천들조차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일컬



<출처: ThisAbility News>

어 에코에이블리즘(Eco-Ableism)이라 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장애인을 더욱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에코에이블리즘은 실제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이 휠체어 접근을 차단당하여 회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단순히 기후위기의 취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주체적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기후위기 해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농민,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그것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커져나간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대응역량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장애인 먼저’라는 에코에이블리즘을 넘어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에 지지 않고 그것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안전이 더욱 공고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을 지지한 국가대표 양궁선수 안산의 말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장애인을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은, 언제나 장애인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재난 시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

# 그해 우리는, 지금 우리는

## | 대학·청년YWCA

2022년 4월 20일, 한국YWCA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YWCA의 청년운동은 1922년부터 다양한 형태, 다양한 주제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다. 오래전 선배님들의 활동을 보고 들으며 우리는 지금을 꿈꾼다. 이번 청년토크에서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에 각각 활동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당시 활동했던 수많은 회원들을 대표해 작성된 이야기는 익명으로 기록했다.

### 1990년대

젊어서였던 것 같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았었다. YWCA는 많은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고, 그 안에서 마음껏 헤엄쳤던 것 같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깨어있는 청년”, 대학 Y지도력훈련에서 처음 고민하며 만들어 봤던 YWCA 모의 전국대회 주제였고, 그렇게 살기 위해 나의 20대를 Y안에서 무던히도 노력했었다. 그때 선배, 동기, 후배들이 함께 길을 걸었고, 지금도 까마득한 후배들이 또 그 길을 따라 걸어주고 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아주 먼 길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당장에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단지 자신의 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 자신의 삶 속에 심어진 Y라는 작은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고, 곧게 자라 줄기를 뻗고 잎이 무성해질 때까지 그 과정을 인내하라고, 마침내 그 그늘에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라고 말해주고 싶다. 젊은 시절 그렇게 잘 살아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 2000년대

나의 20대를 함께 보낸 YWCA는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일

깨워준 곳이다. 전국의 대학생들과 평화를 외치며 강원도 산골 ‘예수원’에서 노동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기도 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정의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꼈다. 한일YWCA청소년협의회에서 밀양 할머니들의 눈물을 보고 Y청년들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은 아직 어제처럼 생생하다. 우리의 평온해 보이는 삶이 누군가의 희생과 억압 위에 있었다는 것을 동시대의 청년들과 함께 배우는 곳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Y는 거대 담론 속의 청년의 역할을 이야기 하는 공간이었다.

앞으로의 Y는 지역사회와 개인 청년의 삶으로 더욱 들어가길 바란다. 그 안에서 Y가 알려주었던 사회적 가치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가면 좋겠다. 단순히 가치를 알리는 전달자에서 함께 해결하고 살아가는 조력자로서 말이다. 경쟁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우리 청년들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친구, Young한 YWCA를 기대한다.

### 2010년대

나의 놀이터이자 학교, 교회였던 YWCA. 오랜시간동안 교회를 떠난 나에게 교회가 되어주었고, 친구가 되어주었고, 인생의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던 귀한 곳이 바로 YWCA이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배웠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조직 안에서 만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 세상을 위해 움직인다는 점이 매우 감동이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낸 귀한 조직에 한 구성원으로 100주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귀

한 순간이다.

앞으로는 Y의 청년운동이 우리끼리만 알고 감동받는 운동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청년들이 감동받고, 함께하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180도 다른 방식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100주년을 기점으로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운동이 바뀌길 기대해본다. 청소년 시기에 YWCA를 만나 20대 후반이던 나는 앞으로도 Y사람으로 함께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운동을 하고 싶다.

### 2015년

대학교 동아리로 처음 만났던 대학·청년YWCA는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단순히 봉사동아리라 생각하고 갔던 전국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온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로 가득했다. 대체 무슨 단체인지래 회원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조직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됐다. 그런 내가 YWCA에서 활동했던 4년 후 기독교인이 되었고, 전공과 전혀 다르지만 사회적 기업에 취업했다. 이 모든게 YWCA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점이다. 그래서 YWCA는 내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존재이다. Y의 청년운동은 취업을 한 후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 지금은 직접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YWCA 운동들을 소식을 통해 보면서 응원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Y의 청년 운동이 앞으로는 직장인 청년들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Y의 청년운동의 폭이 20대 후반, 30대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넓어지길 소망해본다.

### 2020년

100살이 된 YWCA를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글을 쓰면서 짧았던 나의 활동기간을 되돌아봤다. Y틴을 졸업하고 대학생이되고 나서 대학·청년 활동을 기대했지만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활동을 많이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선배였던 언니, 오빠들처럼 재밌는걸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말이다. 비대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게 처음에는 너무 쉽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비대면으로 활동하고, 투표한 이 모든게 추억이되고, 기록에 남겠구나 싶어서 괜찮은 것 같다. 먼훗날 YWCA의 150살 생일에 지금이 어떻게 기록되어질지 궁금한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대학·청년YWCA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이기에 먼 미래의 기대말고 당장의 기대를 생각해봤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가장 먼저 비대면으로만 만났던 Y친구들을 만나서 회의도 하고, 놀고싶다.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다양한 활동을 직접해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청년운동을 해나가고 싶다. 🎉

# <파친코>,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역사

## | 김선영

문화평론가, 좋은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



“저희 어머니는 박복한 분이셨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박복한 팔자’를 닮았듯 풀어놓는다. 여인의 이름은 양진(정인지). 어머니의 부재로 어렵게 자라난 양진 역시 “지리지 복도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시집을 가서 아들 셋을 낳았지만 모두 돌을 넘기지 못했다. 슬픔도 잠시, 뱃속에 또다시 아이가 들어서자 양진은 이번만큼은 꼭 아이가 살아남아 대를 잇기를 기원한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태어난다. 때는 1915년, 일제 치하 조선의 영도에서였다.

지난 3월 25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티비플러스(애플TV+)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드라마 <파친코>는 이렇게 한 여자아이의 탄생기로 이야기를 출발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재미 소설가 이민진 작가의 베스트셀러 원작,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윤여정과 한류 스타 이민호 주연, 일제 강점기부터 80여 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사 배경의 장대한 이야기, 1000억 원대의 막대한 제작비 등 엄청난 화젯거리를 지닌 대서사시의 서막치고는 다소 평범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평범한’ 도입부는 세계적인 호평을 얻어낸 원작의 주제를 공들여 압축한 결과물이다. 원래 원작 소설은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역사가 우리를 망쳐 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오바마가 록 집어 찬사를 보내 더 유명해진 첫 문장에는 역사의 굵직한 기록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열심히 삶을 이어가는 평범한 이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다. 드라마 <파친코>는 평범하다 못해 박복했던, 그러나 누구보다 질긴

생명력을 지녔던 한국 여성들의 삶을 전면으로 내세운 도입부를 통해 이 같은 원작의 의도를 한층 두드러지게 했다.

어미의 절박한 기도 속에 태어난 선자는 기존의 대서사시 주인공처럼 ‘위대한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 선자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없이 다만 “끈질기게 싸움” 아이로 설명된다. 그러나 드라마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깨닫는 순간이 온다. 평범한 이들의 존재를 끊임없이 지우려 했던 야만의 역사 안에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역사적 업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련에 맞서 기어이 삶을 버터내는 선자의 생명력이야말로 이 대서사시의 가장 큰 동력이다.

“끈질기게 싸워”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과는 다르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 여성들은 그저 순응만을 요구 받았으나, 선자는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었던 삶의 고비에 서 자신의 의지를 택한다.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은 한수(이민호)와의 만남으로 인해 찾아온다. 한수는 ‘성공한 조선인’이었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로서 역사의 비극을 물리치고 자수성가한 극적인 성공기의 주인공이다. 젊은 선자(김민하)는 그 자신만만한 한수와 강렬한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된다. 그런데 결혼을 꿈꾸던 선자에게 한수가 건넨 말은 그가 이미 일본인 처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다. 생존을 위해 일본인과 정략적으로 결혼했으나 선자와 자식만큼은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한수의 말에, 선자는 ‘부끄러운 부자의 삶’ 대신 가난해도 떳떳한 삶을 택한다. 그 엄혹한 시절에 혼인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 여성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면서도,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은 그로부터 7년 뒤 찾아왔다. 홀로 아이를 키우려던 선자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전도사 이삭(노상현)을 만났고 그와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었다. 이삭은 선자의 강인함을 사랑했고 그녀와 한수의 아이인 노아에게도 헌신적인 애정을 쏟았다. 1년 전 태어난 둘째 아들 모자수도 돌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별개로, 재인 조선인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어린 노아마저 학교에서 따돌림 받을 정도로 노골적인 차별이 항시 그들을 괴롭혔다. 설상가상으로 이삭은 일본 천황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고, 가장인 형 요셉(한준우)까지 직장에서 해고당한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자는 포기하는 대신 넘어진 땅을 박차고 일어선다. 가장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동서경희(정은채)의 우려에도, 직접 생계를 책임지려 했다. 선자가 선택할 수단은 김치 장사다.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향한 멸칭으로 사용하던 김치를 오히려 무기로 삼은 것이다. 김치를 수레에 싣고 장터로 나간 선자는 일본인들의 경멸적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드높인다. “오사카 최고의 김치라예. 시상 천지에 이런 김치 없습니다. 우리 어무이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나라 김치입니다.” 냄새에 질색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곳곳이 외치는 선자의 얼굴에는 아우내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던 열사들 못지않게 강인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드라마 <파친코>는 극 중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절망의 시대를 홀로 버티고 선 선자의 모습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식민 지배 때 일본으로 이주했다. 그중 80만 명은 일제에 의해 노동자로 끌려갔다. 대부분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약 60만 명은 일본에 남아 무국적자가 됐다. 이 이야기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다. 그녀들은 견뎌냈다.” 자막 뒤에는 노년의 선자를 닮은 재일 한국인 1세대 여성들의 인터뷰가 에필로그처럼 이어져, 다시 한번 이 작품이 “끈질기게 싸워” 버텨낸 이들에 대한 헌사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파친코> 시즌1은 방대한 원작의 서막이다. 애플티비플러스는 시즌1이 종영된 30일 시즌2 제작을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안에는 조국이 광복을 맞이한 뒤에도 여전히 힘겨운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재일 한국인들의 삶이 그려질 예정이다. 드라마 <파친코>는 이미 원작의 연대기적 서술과 달리 과거와 현재의 교차 편집을 통해, 선자의 손자 솔로몬(진하)이 한층 공고해진 차별에 시달리는 모습을 그려낸 바 있다. 미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아메리칸 드림’의 아이콘이 된 신세대 젊은이 솔로몬은 선자 세대와 달리 자신은 능력으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 믿었다. 뛰어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계약 실패로 가차 없이 해고당하고 나서야, 솔로몬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차별의 시대를 견뎌온 생존자이자 역사의 목격자인 선자는 방황하는 손자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오랜 소원을 떠올린다.

<파친코>는 이처럼 선자의 부모부터 손자까지, 가족 4대에 걸친 평범하지만 절박한 생존기를 통해 그동안 주류 역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재일 한국인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이들의 설움은 단지 한 국가의 비극이 아니라 그동안 역사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의 눈물이기도 하다. 외신에서 ‘올해 가장 뛰어난 드라마’ 중 하나라고 찬사를 보내는 데에는 거기에 모든 배제된 이들의 역사적 복원이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파친코>의 진정한 의의는 단순히 K-콘텐츠에 대한 주목을 떠나, 글로벌 시대가 지향해야 할 다양성의 윤리에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상 최초로 비영어권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 수상한 일을 계기로 더욱 주목받게 된 다양성 이슈는 최근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과제다. 글로벌 콘텐츠 공룡 디즈니와 OTT 선두주자 넷플릭스도 다양성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발주자로서 세계 시장에 뚜렷한 인상을 남겨야 하는 애플티비플러스가 <파친코>를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파친코>는 우리 시대의 클래식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

# 비영리 규제 개혁과 YWCA의 역할

|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올해 100주년을 맞는 YWCA는 한국 근현대사 역사의 현장에서 항일운동, 민주화운동, 여성운동을 이끌어오며,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 시민의식의 근간이 되었다. 최근 정치권의 남녀갈라치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로서 평화통일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YWCA는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며, 좀더 가볍고 힘 있게 달리기 위한 조직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 위 과정에서 여러 복병을 만나며, 70년 간 정제된 낡은 법제도와 관행에 맞서 고군분투 중이다.

## 주무관청의 책임 있는 감독 미비

###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제 상황

그 동안 시민단체들은 끊이지 않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느라 비영리 조직 제도 개선에 나설 여유가 없었고, 정치권은 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영리 제도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주무관청의 책임 있는 감독은 미비했고, 비영리 단체 관계자, 전문가, 세무 당국 담당자조차 법률 규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규제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K·미르재단, 새희망씨앗 등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공익법인 감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방치되어 있던 법규제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많은 단체들은 가산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알게 되었다. 또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단체들은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모금 단

체로 지목받았다. 이후 비영리·공익법인 교육은 복세통을 이루고, 비영리단체들은 관련 규제를 공부하고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중복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제를 지키고자 노력할수록 단체의 활동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행정력을 요구할 것인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권리인 결사의 자유를 방기할 수는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일본 민법에 근거한 규정으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례이다. 모태가 된 일본도 일찍이 등기만으로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립허가주의는 법인 운영에도 이어져 정관을 변경할 때도,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원 결사체인 사단법인의 사업을 구성원이 아닌 국가가 결정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주무관청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지극히 소극적이어서 기본재산을 쌓아두고도 이자소득이 부족해 사업을 축소하는 법인이 허다하다. 특히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금이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이 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일절 사용하지 못한다.

주무관청이 운영비 사용을 위해 납부한 회원들의 기부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단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훗날항쟁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지 묻게 된다.

## 구성원 의결 있으면 법률상 합병, 분할 허용되도록 해야

영리법인과 차별적 취급도 문제다.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합병, 분할에 대해 국가의 관여는 없다. 비영리라는 이유로 허가가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합병,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상황에서 YWCA는 법인 설립 방식으로 사실상의 분할을 추진하고 있고, 위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법인을 설립하면 큰 산을 하나 넘은 듯하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다. 단체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려면 기부금품법 이슈와 마주한다. 기부금품법은 모집 비용을 15%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행정관청은 내부 인건비는 위 모집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YWCA와 같은 운동단체들은 단체 활동가의 활동이 사업이고, 인건비가 곧 사업비인데, 인건비를 모집 비용으로 해석하여 제한한다면,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금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모집비용 규제와 그 해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대형 모금단체라 할지라도 위 수치를 맞출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실제로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한 모금액은 국세청 공시 기준 총 기부 금액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당수 기부금은 기부회원들의 기부, 기부자의 자발적 기부로 이루어진다.

## 모집비용 규제와 해석 완화 필요

### 단체 인건비는 사업비로


그동안 기부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던 행정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 대고등법원은 의결권이 없는 회원의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등록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모금 단체 사무총장에게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인 소속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사업부서 포함 직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모집비용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판결을 다투며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두가 살얼음판이다.

기부금품법은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 모

집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소속원의 의미에 관하여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모집비용 제한 규정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례이다. 한 때 미국 각 주의 행정청들은 모집비용 비율이 높은 단체의 모집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두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모집비용 비율 제한이 단체의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모집비용의 규모는 비영리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에 의해 달라지므로 모집비용 상한 규제를 통해 기만적인 모금 행위를 판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 이후 모집비용 비율을 25%로 규제하던 메릴랜드 주법에 대하여도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고, 모집비용 비율은 단체의 자율에 맡겨졌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과거 40년 전에 사장된 규제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강력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평소에는 기부금품 미등록 단체에 대한 감독이 등한시되다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기부금품법 위반 조사가 시작되어 사실상 단체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구시대적 유물과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불법모금단체로 몰리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기부금을 모아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 단체로서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 위헌적 규제 잣대로 불법 모금단체로 내몰려선 안돼

소수자에 대한 억압, 남의 일이라면 발뺌하고 나서는 시민단체가 스스로의 운영 이슈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면, 시민사회 생태계가 무너진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규제의 잣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가 있으면 불법 모금단체로 내몰 수 있는 규제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시민사회 앞으로의 100년을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100년 간 한국의 시민운동을 주도해온 YWCA가 그 길을 찾는 데 나서야 할 때다. 

# 한국YWCA 후쿠시마 11주기 전국동시다발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투표로 말해요, “NO 핵발전, YES 재생에너지”

전국 35개 지역YWCA 및 연합회에서 진행



투표로 말해요, “NO핵발전, YES재생에너지” 캠페인 지역별 사진 모음

한국 YWCA는 3월 2일(수)부터 8일(화)까지를 후쿠시마 11주기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주간으로 삼고, 연합회와 전국 35개 지역YWCA에서 ‘투표로 말해요, “NO핵발전, YES재생에너지”’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이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이다. 최근 울진의 산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받았던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불안정성을 입증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핵산업 신기술은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연구했으나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될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핵발전은 더욱더 취약하지만, 탄소중립을 선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한국YWCA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쿠시마 핵사고가 남긴 교훈을 망각한 채 대책 없는 핵발전 공약을 내거는 대선후보들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주간을 열었다.

이번 전국동시다발 탈핵기후 캠페인은 개최기도와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책 없는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의 발언으로 이슈가 되었던 SMR(소형모듈원자로), 파이로 프로세싱과 RE 100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한국YWCA는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전국 52개 지역에서 8만 회원과 탈핵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진행 지역

강릉YWCA, 광주YWCA, 거제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동해YWCA, 목포YWCA, 부산YWCA, 사천YWCA, 서울YWCA 서귀포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충주YWCA, 파주YWCA, 하남YWCA, 총 35개 회원YWCA 및 한국YWCA연합회

# No 전쟁, Yes 평화!

## 3.8 여성의 날 우크라이나 전쟁반대 여성평화 시위



### 여성평화 시위 통해서

#### 러시아 침략 중단 및 우크라이나 평화회복 촉구

세계여성의날을 맞은 3월 8일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10개 여성평화단체들은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촉구하는 여성평화시위를 열었다.

한국YWCA연합회와 52개 회원YWCA지부를 비롯하여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평화포럼, 기독교여민회, 경기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뉴코리아,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두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땅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크라이나 여성들, 여성의 날을 지키고 지위 복원에 힘쓰는 러시아의 많은 여성들, 한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 분쟁 속에서도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온 여성들,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계속하여, 평화의 연대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첫 번째 연대발언을 맡은 김예지 한국YWCA연합회 청년이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곧 한반도의 평화이며, 지금 러시아군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묵인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헤치려는 누군가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면서, 전쟁의 아픔을 겪은 한반도 여성으로서 지켜만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고 밝혔다.



윤은주 뉴코리아 대표는 “푸틴은 부당한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미국여성들은 바이든 정부가 나토군으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도록 수습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부모를, 아이들을, 연인을, 이웃을 모두 잃은 채 울부짖는 그들 앞에 푸틴은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이미 패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주 움트다 회원-목사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의미한다”면서 “전쟁이 종식되어 안전한 장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은 “세계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150만 명의 피난민이 속출하였으며, 난민의 80%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피해자만이 아니며 ‘픽스메이커’로서 이 전쟁의 광기를 멈출 때까지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 여성난민 기억하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끝까지 연대 결의

세계여성의날,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여성평화시위 성명서는 이광실 파주YWCA 사무총장, 이기쁨 서울YWCA 간사, 조정현 대전YWCA 국장이 낭독했다. 그 어떤 형태의 침략과 전쟁도 용납될 수 없으며, 푸틴이 반전 시위 참여자들을 즉시 석방할 것과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여성난민을 기억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위에 참여한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손바닥 모양에 우크라이나 평화의 연대의 메시지를 적어 올리는 ‘연대의 깃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러시아 대사관을 향해 서서 2분 간격으로 총 십 여 차례 “전쟁 멈춰, 우크라이나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하였다. 

# 기후위기와 여성, 그 관계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기후위기, 환경, 재난위험경감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and disaster risk reduction policies and programmes)'를 주제로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가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이후 CSW는 온라인에서 뉴욕 시간(한국 시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에 진행되었고, 한국YWCA연합회는 연합회 및 회원YWCA 활동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관점은 '기후위기'라는 당면한 문제 앞에서 여성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이다. 여성은 위치한 자리에 따라 기후위기의 피해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가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가이다. 문제는 여성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지만, 이 해결 과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정책의 주요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각 국가 및 단체들은 현재까지 전개해온 정책과 사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YWCA 중에서도 자주 재난에 노출되는 일본YWCA와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YWCA에서도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기독교단체(faith-based organization)들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여성신학적 관점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CSW66의 더 자세한 내용은 5월 중에 배포될 CSW66 보고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2023 한국YWCA의 운동 방향이 탈핵기후생명 운동인 만큼 보고서에는 추후 회원YWCA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담길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참여한 세션, 세션에서 소개된 데이터 등 자세한 자료가 포함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의 감상과 CSW66의 결의문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짧게 이 지면을 빌려 한국YWCA 대표단으로 참여한 두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본다.

## 김륜희, 대전YWCA 대학청년Y회장

제66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의 주제인 '기후변화, 환경과 재난 위험 감소 정책 프로그램 맥락에서의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세션을 참여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은 여성 리더십과 각국의 기후 위기 대응 사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세션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Empowering Rural Women through a Climate Resilience Lens>에서는 성 중립적이지 않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JP RWEE(농촌 여성의 경제적 힘을 향한 진전 가속화)를 제시하였다. JP RWEE는 결론적으로 여성들이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수준을 증가시켰다.

<Empowering Women through Cooperatives>에서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 즉 여성의 권력을 높이는 데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두 개의 세션 모두 여성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YWCA의 여성 리더십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에게 주체적으로 리더가 되어 활동하고 이를 통해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내용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세션을 운영하는 방식 중에



서 인상 깊었던 세션이 있었다. <Building a Gender-just Response to Climate Change>이었다. 본 세션에서는 3개의 언어 번역과 자막 그리고 수어 통역을 제공하였다. 이 세션의 운영 방식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자막과 수어 통역을 활용한 참가자들과의 소통 방식 때문이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인터넷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자막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어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수어 통역을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참가자를 배려한 점도 인상 깊었다.

이번 CSW를 참여하면서 YWCA에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기회를 많은 청년들이 함께 경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혹시 참가에 대해 망설였던 청년이 있다면 다음에 기회가 생겼을 때 꼭 참가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 고하은, 서울YWCA 대학청년Y 회장

6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66) 참여를 통해 경험한 '여성리더십'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한국YWCA와 서울YWCA가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2022년에는 감사하게도 대학·청년

YWCA협의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한국의 여성이자 청년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에 온라인 Zoom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지만,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함께 소통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리더십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또 앞으로의 Y활동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2022년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6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66)가 진행되는 2주간의 기간 동안 PARALLEL EVENT 4개, SIDE EVENT 2개로 총 6개의 세션에 참여했다. 특히 관심을 가졌던 주제들은 "Women's Leadership, Girl(Young Women)'s Participation, Economic Empowerment,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등의 키워드와 연관된 강이었다. 이번 CSW66에서 흥미로웠던 2개 세션을 소개하자면, 첫째,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throug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여성 리더십, 여성의 권한 및 경력력 강화, SDGs 등의 키워드와 관련된 강의였는데, 12명의 패널이 각기 다른 12개의 주제로 UN SDGs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발표하여 다양한 내용과 쟁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

12개의 주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패션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친환경 의류 및 소비체제 구축, 지속가능성, 순환 경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느껴졌다. 또 기후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환경'을 중요 키워드로 생각했을 때 ESG, SDGs와의 연계성이 높다고 생각되었다. 둘째, <Changing Leadership for Our Common Agenda and a Future Summit: An Intergenerational Dialogue>는 여성 리더십, 청년, 인권 등의 키워드와 관련된 강의를었는데,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패널이 나와 별도의 PPT 자료 없이 UN 및 여성 관련 이슈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으로 평화 및 안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강의 연사 중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UN총회의장'이 발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현재 서울YWCA의 청(소)년평화통일기획단 피스톡톡(Peace Talk Talk) 동아

리 활동과 관련하여 여성학적이고 평화학적인 관점을 토대로 UN SDGs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계획하는 것에 있어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SW66에서의 6개 세션 참여와 한국 YWCA 대표단의 3차례에 걸친 온라인모임(Zoom)이 있었다. 이번 CSW66에 대한 참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청년, 전문가들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서 여성연대를 확인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작용했으며, 앞으로 한국YWCA 내부에서 여성운동 및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있어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볼 수 있었다. 2023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 한국 YWCA 대표단이 직접 별도의 세션을 운영하여 UN 본부 현장에서 한반도 이슈를 전 세계의 여성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희망한다. 🌱



# 여가부폐지를 폐지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마련하고 역할을 강화하라

김예지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이 공약으로 인해 20대 대선은 젠더갈등과 약자를 향한 혐오로 점철된 선거가 되었다. 당선 후에도 여전히 여가부 폐지 문제를 인질삼아 여성의 주체성을 박탈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절망적이게도 20대 남성들은 환호했으며 20대 여성들은 좌절했다. 여성혐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할 청년 여성들에게 여가부 존치가 무엇보다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YWCA도 발빠르게 목소리를 냈다.

3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싸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여성단체 대표들이 면담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과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을 비롯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대표가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여가부 존치·개편 여부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들어볼 수 없었다. 갑자기 20대 남성의 취업난을 들먹이기 시작한 것이다. 20대 취업난이 비단 남성 청년만이 겪고 있는 문제처럼 말한 것이다.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도 함께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가부 존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오지 않은 인수위가 굳이 20대 남성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철저히 여성을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으로 비춰졌다.

4월 2일, 여전히 여가부 존치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은 인수위에 한 번 더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를 느꼈다. 며칠간 이사회에서 전국적으로 폐지반대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 폐지 반대가 아닌 기능 강화 및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등의 치열한 논의가 계속됐고 마침내 최종 요구안이 완성 됐다. 국민의 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여가부 폐지 반대 또는 확대 개편을 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한국 사회의 심각한

성평등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세대의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여가부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성평등부'로 명칭 변경, 여가부 정책 기능 등의 내용을 담아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기능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연합회 요구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4월 7일, 여가부 폐지가 유예됐다. 여가부 장관 후보도 내각 인선 때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였다. 여성들은 한숨을 돌렸으나 마냥 안심할 수는 없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이 눈치를 보느라 여가부 폐지 문제를 지방선거 후로 유예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로부터 아직도 여가부 존치와 기능 확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였다. 여가부 존치는 여전히 바람 앞의 촛불이었다.

4월 14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여가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하여 11개의 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를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및 추진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성별 임금 격차 OECD 최대, 연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약 2만 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수많은 문제를 거론하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을 꼬집



어 여전히 여가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 청년들은 여가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정책으로 인해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난을 떠안았음을 토로하며 그럼에도 여성 청년들은 필사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원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출산을 강요받지만 경력단절은 여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성의 성범죄 시도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랑한다는 변명으로 포장된 데이트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여성들이 겪는 이 모든 문제를 여성가족부가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여성 청년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밝혔다. 이제껏 여가부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여성 중요 범죄에 대해 미비하게 대처함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가족부가 기존의 역할을 넘어서서 여성과 성평등 의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YWCA는 여가부 존치 및 기능 확대를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가부 존치 및 기능 확대에 대해 더 많은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청년 의제는 지위버리고 단순히 젠더갈등을 조장하여 표를 얻는 선거를 자행했던 정치권을 심판하기 위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

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앞장서서 여가부를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청년 조직과 연대 운동을 준비 중에 있다. 단순히 여성만이 아닌 모든 청년이 여가부 존치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남성 청년들에게도 목소리를 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함께 의견을 낼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의견을 모으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많은 청년과 함께 운동을 전개해보려 한다. 이 운동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곧 출범할 새 정부가 계속해서 여성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여성과 청년들 또한 분노하며 광장에 나설 것이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가부 폐지 문제는 단순히 정부 부처 존폐의 문제가 아니다. 불안정한 고용 시장,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엔 터무니없는 저임금.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청년세대를 젠더로 갈라 치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의 문제다. 20대 대선을 시작으로 정치권이 계속해서 혐오를 이용한 선거와 정치를 이어나간다면 더 이상 한국 사회에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청년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한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에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를 소명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

##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

#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지하라!

### 구조적 성차별 없다던 윤 당선인의 주장, 그가 스스로 뒤집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 4월 10일,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리고 그 8명 중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유일했다. 윤 당선인 스스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 그가 결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 채용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3.8 여성의 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를 남긴 그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 차별과 혐오 위에 세워진 당선, 그 이후는 달라야 한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장이었다. 차별과 폭력, 불평등으로 얼룩진 여성들의 삶에 대한 대안 제시는커녕 성별 갈라치기로 갈등을 부추기며 차별과 혐오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다.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국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없다. 민주주의 실현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당선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윤 당선인은 지금 당장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및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 여성, 소수자, 그리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위해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을 다하라. 우리 여성들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2년 04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녹색당 / 모두의 페미니즘 / 불꽃페미액션 / 서울여성연대 / 전국여성연대 / 진보당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한국YWCA연합회

# 청소년 금융교육을 위한 '씽크머니' 프로그램 협약식

| 홍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팀장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 씨티은행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함양해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경제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한 경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씽크머니 프로그램의 씽크머니 협약식을 4월 14일(목) 연합회 회관에서 진행했다.

2006년부터 운영하며 올해로 17년차를 맞이한 씽크머니 프로그램은 지난 16년 동안 58만 여 명의 청소년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2017년부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금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씽크머니 상설교육장인 금융생활체험공간 '펍핀'(Pub-Fin) 2개 센터를 수원과 세종에서 함께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식은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원영희 회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인한 경제의 불균형 심화로 인한 취약 계층의 고립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금융교육 과정 안에서 금융가치관을 정립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21년 씽크머니 사업 보고와 2022년 계획

이어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씽크머

리 사업의 성과를 치하하며 창의적인 콘텐츠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는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외에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안 연구 개발에 초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YWCA 가치를 전하는 금융·경제교육 연구단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YWCA 씽크머니 소속 금융·경제 교육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사 활동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 및 책임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문 멘토들과의 일대일 멘토링을 운영하며 강의 기법과 학습지도안 작성, 강의시연 피드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강사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YWCA의 운동 방향성에 대한 실천의 내용이 담긴 금융 교육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모바일 금융거래의 종류와 활용법을 익히고, 스마트 금융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의 사례와 관리의 필요성을 청소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이슈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활동, 성평등, 환경, 평화, 경제 분야를 금융경제와 연계하여 가상의 온라인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대회에 참여하며, 본인들의 공간을 만들고 멘토 및 팀원들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되더라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팀 활동 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올해 씽크머니는 비대면 교육확대에 따라 기존에 개발했던 '구해줘 홈즈' 보드게임을 온라인 틀을 통해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1사교 금융교육을 통한 공교육 내의 지속적인 교육 확대와 더불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었던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경제편, 올해로 3회째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조물로 만들어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_경제편(Future Financial City) 대회는 2020년에 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만세 프로그램은 경제, 성평등, 청소년 활동, 평화, 환경 등 5개 영역의 주제들을 금융·경제와 접목하여 조별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이다. 1회 대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2회 대회는 온라인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전면 개최되었으며, 온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접근성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기회를 제공했다.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_경제편 대회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마주하는 사회문제를 청소년들의 시각과 문제해결력으로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2020년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단체사진 >



< 2020년 이코이지팀-청소년 금융상품 시뮬레이션 어플 개발 >



< 2021년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단체사진 >



< 2021년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게더타운 온라인 플랫폼 >


# 성평등한 교회를 향하여



3월 30일 저녁, 한국 동행모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이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 성당에 모였다. 이날의 예배의 주제는 '성평등한 교회를 향하여', 예배의 제목은 '애가: 여성들, 탄식(哀) 속에서 사랑(愛)을 노래하다'였다.

한국 동행모임은 올해 8월에 진행될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를 앞두고, WCC가 제시한 아젠다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모임으로 7차 예배는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한 기독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WCC 제11차 총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에큐메니컬 기구로서 YWCA와 연대하여 '검은목요일캠페인'을 비롯한 성평등운동, 한반도에큐메니컬포럼 등 평화통일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0회 부산총회에서는 국내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제안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WCC선언문'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동행모임에서는 한국 교회 여성들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고백하고, 성평등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간구와 결단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던 움트다 최규희 목사의 설교를 나눈다. 

## 사랑, 경계를 넘어서다

(마태복음 15장 21-28절, 마가복음 7:24-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자기 딸을 위해 예수께 나아와 간청한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막7:26)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습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아무리 간청해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23절), 보다 못한 제자들이 "둘러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간청하자 마지못해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자가 포기하지 않자, 예수님은 심지어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번역은 '강아지'라고 번역하였지만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은 모두 '개'라고 번역합니다. 이방인을 사람이 아닌 개들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시는 듯한 이 '모욕적인 표현'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냉정하게 선을 긋는 분, 이방인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인의 당돌하면서도 지혜로운 말로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항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

| 최규희 목사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무리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남습니다. 이 본문과 이 본문 속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셨는지, 오늘 본문의 해석을 위해서는 이 본문이 놓인 자리, 즉 앞뒤 맥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 모두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통 오병이어 기적은 잘 알려져 있지만 칠병이어로 사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방 지역 사역과 연결하여 보면 칠병이어 기적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가운데 이방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유대 공동체를 위해 떡을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던 칠병이어 기적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넘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지리적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기 전, 의도적으로 두로와 시돈, 즉 이방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회·문화적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특히 유대 남성과 이방 여성이 서로 상종할 수 없었던 당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생각해 볼 때 공개된 길가에서 이 가나안 여인과 마주하여 대화하신 것은 하나의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소명의 경계,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들이 우선이었던 메시아로서의 소명의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2장까지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위치에 대해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갖는 특별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특별함이 다른 모든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제한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그의 경계를 넘으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 이름 모를 가나안 여인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명저『배제와 포용』에서 그의 아내이자 동료 신학자인 주디스 건드리 볼프를 인용하며 이 여인이 "여자가 가정을 돌볼 때 적용하는 자비"의 원리를 통해 "의무에 매여 이방인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꺼리시는 예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의 자비에 "아무런 인종적 편견이 없다"는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하신 그의 믿음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딸을 고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님처럼 자신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경계를 넘어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한 동기는 귀신에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가는 딸,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매물차게 들리는 예수님의 원칙적 말씀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다. 모욕당함을 무릅쓰고, 끈기 있게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딸의 치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성평등한 교회를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탄식하며 수고하는 많은 여성, 남성 동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의 주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성평등한 공동체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세계의 교회가 오늘 본문 초반부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처럼 자신들의 원칙에 갇혀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름 모를 여인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을 노래하는 여성들로 인해 교회가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Y-지역 청년 커뮤니티

##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주)로컬프렌들리 대표

YWCA청년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로컬프렌들리(Local Friendly)는 초기교회공동체 교제(행2:46)와 YWCA의 지역운동, 청년성에 기반을 둔 회사로 현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 현재 군산 구(舊)도심에서 '커뮤니티호텔'과 우리술 보틀샵 '술 읽는 상점'을 운영하며 외지인이 군산을 여행처럼 살길 바라고, 지역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군산이 되길 꿈꾸며 커뮤니티를 기획한다. 2022년에는 YWCA 100주년을 맞이하여 YWCA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비즈니스화시키고, 지역과 청년의 지속가능함을 위한 고민의 여정이 총 6번의 글을 통해 연재된다.

### 서울공화국과 지역소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국가 총인구는 감소하는데 수도권 인구집중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소멸위기는 더욱 현실화 됐다. 전체 기초단체의 약 50%에 해당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 지역소멸의 위험은 더이상 농어촌 지역의 사람없음이라는 물리적 소멸 문제를 넘어섰다. 이제는 중소산업도시들의 쇠퇴 문제, 더 나아가 대규모 산업 직접지의 쇠퇴 문제가 실질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4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는데,<sup>1</sup> 비수도권에서 유출되는 대다수의 인구가동인구의 대다수가 청년층임을 감안할 때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더 커진다. 근대항구도시인 군산은 전북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대규모 중공업이 발달한 도시다. GM 군산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았고, 도시는 침체됐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갔고, 가게들도 문을 닫았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졸업 후 군산을 떠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자리를 찾아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산업도시로 떠나던 청년들이 이제는 그곳마저 떠나게 됐다.

### 떠나는 청년? 떠나 보내는 지역

지역소멸과 수도권을 향한 청년 유출. 지금껏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숫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떠나게 하는 지역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먼저 먹지 않는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 또한 아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 지역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의 다양성과 기회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떠난다. 임금 수준을 포함하여 일자리의 질과 다양성은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지역은 떠나는 청년들에게 기업유치 혹은 공장 재가동에 대한 플랜카드를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주로 지역이 보유한 산업과 관련한 전문이나 비용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일자리와 지역의 현실 일자리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과 다를 것도 없는 일자리만 늘려서 청년들을 지역에 붙잡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군산에서도 2017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군산조선소가 2023년 1월 재가동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많게는 1천명의 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그 산업과 관련 없는 청년들은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1) 행정안전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이 2017년 85곳에서 2021년에는 108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2) 일자리위원회, 「지역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과 대응 방향」(2021.11), 일자리 정책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9호, 2021.  
3)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한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호남권이 163.3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호남권 여성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145.5만원으로



여행자, 지역민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를 위한 로프의 동네지도.



전국 인구감소 현황 인포그래픽 행정안전부.



지역민들을 엮어내는 로프의 커뮤니티 능력은 YWCA 공동체 가치에 기반한다.

### 일 자리를 찾았다 해도, 지역에 살게됐다 해도

일명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그런 일자리를 찾았다 해도 지역은 문화적 혜택과 성장의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한계가 있다. 지역 원주민이 지역을 떠나고 싶은 이유도, 외지인의 정착이 어려운 이유도 일자리 다음으로 '문화, 여가 생활'을 꼽는다. 지역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며, '지역 기업에서 일하면 인건비를 준다', '지역에서 창업 또는 전입신고 하면 몇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등의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수명이 있다. 유인에 이끌려 지역에 살게됐다 하더라도 이주한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약 3년이 지나면 지원은 끊긴다. 그 안에 일자리를 찾는 것도, 창업을 해서 혹은 정착을 해서 삶을 안정화 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 정주인구·교류인구·관계인구

지역으로의 청년정주인구의 이주는 중요하다. U턴(출신지로), J턴(출신지 언저리 도시로), I턴(연고없는 지역으로)에, 조부모 고향으로의 손(孫)턴까지 다양한 패턴의 이주인구 그룹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방쇠퇴의 대안으로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했는데, 이주에 의한 '정주인구'와 관광을 통한 '체류인구' 확대를 넘어, 지방과 다양한 관계를

가진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를 강조한다.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닌 관계인구는 지역과 관계(緣)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역인구소멸과 그 외 여러 지역의 문제를 청년이 전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청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지역에 희망이 되어준다. 4년차 군산에 살면서 만난 청년들의 사정도 다양했다. 군산에서 태어나 현재까지도 군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예술가, 군산 출신이 아니지만 군산 소재의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군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여행으로 왔다가 군산의 매력에 빠져 이제는 여행자를 맞이하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군산에서 진행된 창업지원프로젝트를 통해 정착한 청년 창업가, 그리고 휴가는 무조건 군산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군산이라는 지역에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다.

### 로컬 커뮤니티 디자인

로컬프렌들리는 '로컬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회사로 지역의 커뮤니티(공동체)를 디자인한다. 지역내 커뮤니티 가치가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지역의 청년정주인구 소멸의 문제 등 도시의 문제들을 당장 해결 할 수 없

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고용노동부, 「지역별 청년 노동시장 동향 및 일자리의 질 비교」(2021.08), 고용동브리프 6호, 2021.  
4) '타지에서 이주해온 '정착인구'도 아니고 관광 등 '교류인구'도 아닌, 단기 체류나 자원봉사 활동, 정기적인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특정 지역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인구를 말한다.



타지에서 군산으로 모인 청년 창업가들.



지역청소년들과 함께 동네 아카이브 <개속이속>을 발간했다.


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작은 회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YWCA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우리만의 가치와 커뮤니티 능력으로 군산 청년 창업가, 예술가, 지역민 등 이들을 접착제같이 엮어냈다. 지역 안팎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디자인 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고, 지역이라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을 함께 쌓아간다. 외부청년을 지역에 데려와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군산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재밌게 모여 살도록 단단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 다양하고 단단한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이 결국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지역민 커뮤니티의 무드와 매력에 반한 외국인들 또한 군산을 찾고, 계속해서 군산에 올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확장시키며 관계인구를 만들어 간다.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고 협업을 통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각계전투로 개인이 누렸던 것 그 이상의 경험을 함께 한다. 대도시로 떠나는 유출인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와 같은 청년 커뮤니티에 초대하여 군산을 떠나야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살아봐도 될 것 같은 지역으로, 군산에서의 삶에 희망을 갖게 한다. 외국인들을 끌어들이지만 확실한 정책은 없지만, 군산에 하루 놀러온 여행자는 지역민의 커뮤니티 안으로 엮어내어 하루 여행으로 왔지

만, 하루 살아보는 비밀상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살이에 대해 꿈꾸게 한다.

### 이방인과 원주민 그 사이

군산살이 4년차. 이제는 이방인도 아닌 완전한 군산 원주민이라고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애매한 텐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지역에 잠깐 왔거나 정착하기 위해 온 외국인들에게는 선배로서 지역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군산-엑소터스를 마음에 품고 사는 지역민이 지역을 즐기며 떠나지 않도록, 사람을 엮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며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작은 동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2017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슬로건이 생각한다. '지역을 살리는 청년, 원더풀(원하는 지역사회 더불어 풀어가세). 모이고 흩어짐은 중요하지 않다. 커뮤니티의 지속성은 '가치의 힘'에 있다. YWCA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프렌들리가 구심점 혹은 테두리가 되어 지역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 나아가 그 커뮤니티가 개인의 문제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 할 것이다.

지역을 살리는 청년, 청년을 살리는 지역이 아닌 '지역과 함께하는 청년,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군산에서 로컬프렌들리의 비즈니스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지역민과 외지인의 커뮤니티로 채워질 것이다. 

## 한국YWCA 성명서

#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라.

한국YWCA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과 급격한 난민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무분별한 폭격으로 건물의 80%가 파괴되는 대규모 피해 상황을 맞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의하면, 3월 24일 현황으로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1,119명이고, 민간인 부상자는 1,790명으로 사상자가 3,000여명에 이르며, 군인을 포함한 실제 사상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의 10%에 달하는 370만 명이 국경을 넘었으며,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1천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는 6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300만 명이 피해 지역에 고립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 내 점령 도시에서는 피랍의 위험마저 증가하고 있으며, 피난민 여성과 아동을 겨냥한 인신매매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인 난민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주변국들과 G20 멤버국들은 피난민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지구 반대편인 뉴질랜드도 4천명을 받기로 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필리핀, 스리랑카 등이 난민 수용을 자처하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내 체류 중인 3,800명의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전쟁 속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탈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며 난민 심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갖추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비율은 2% 미만으로 유엔(UN) 가입국의 평균(38%)에 크게 못 미친다. 다행히 지난 해 탈레반 세력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 377명을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받아들인 일은, 한국 사회 속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진전된 과정을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은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인도적 지원과 기본적인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난민 수용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절차의 보완을 통해 난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YWCA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난민 수용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세계 시민들과 연대하여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지지할 것이며, 전쟁 복구 모금을 통해 우크라이나 여성들과 아동들의 인권과 일상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2022년 3월 28일  
한국YWCA연합회

## 기후정의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 3:13)

지난해 2021년 3월 9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1년간 우리는 거리 피케팅과 기후행동학교, 수요기도회와 정책협의회, 교단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와 기구의 구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와 교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변화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징후와 절박한 요청에 응답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 운동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교단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목전에 와 있습니다. 금번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6차 연례보고서 2실무그룹 보고서는 심각한 기후위기의 재난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2실무그룹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막아낸다 할지라도 육상 생태계 전체 종의 3~14%가 멸종위험에 처하고, 도시인구 3억 5천만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C는 과학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2021년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 1실무그룹 보고서가 전한 사실에 따르면 IPCC가 승인한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보다 약 10년가량 앞당겨 탄소중립을 이루지 않으면 1.5°C 이내로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5°C로 막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새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후위기는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부터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가뭄, 홍수, 산불, 태풍, 한파, 폭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기근과 온열 질환, 삶의 터전 상실을 통해 난민이 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쪽방촌의 거주자들과 농어민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를 새로운 정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소중립을 이루고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은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날 때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곁에서 정의롭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 첫째, 해발전이나 공학적 해결방식에 대한 맹신을 버리십시오.

해발전이나 공학적 해결방식에 대한 맹신으로는 당면한 위기의 옷자락도 잡을 수 없습니다. 가능성 없는 일을 위해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후회만을 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선택하여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 둘째, 기업과 정부, 시민 사회 전체가 함께 전환의 길에 나서야만 합니다.

IPCC 보고서를 통해 전해진 과학자들의 경고에 걸맞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상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탄소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과거 정권의 해결방식으로 회귀한다면 기후위기에 놓인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최악의 정부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셋째,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계를 위한 수단을 잃어버리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전망은 어두울지 모르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새롭고 정의로운 세상의 마중물이 되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거리에서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공포와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16일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다.

###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하라!

0.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2조, 제34조, 제36조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UNCOSW),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통해 성차별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적 성차별 해소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1. 대한민국은 성별차지수 156개국 중 102위, 성별임금격차 26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고(31.5%, 2020), 유리천장지수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성차별이 매우 심각한 국가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위기는 여성들을 일터에서 내몰아 경력단절을 심화시키고, 독박 돌봄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혐오와 폭력의 심화 또한 여성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의미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들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입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해 더 넓고 더 깊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시기에 국가적 책무의 상징인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국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가 성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여기는 것은 실질적평등이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함께출산율 0.81명(2021)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성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수위위원회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경청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여성시민사회단체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4. 2021년 유엔은 제65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합의문에서 (E/CN.6/2021/L.3): "국가기구는 성평등 증진의 주요 촉진자이다. 회원국은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있어 ① 성평등 전담 기구 강화 ② 성주류화 정책 증진과 성평등 발전 ③ 젠더 통계의 수집, 배포, 활용을 위한 노력의 배가 등 3가지 활동을 추진한다." 라고 각 회원국에 권고했습니다. 발전, 평등, 평화의 21세기를 꿈꾸었던 북경 비전의 달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뿐 아니라, 이미 획득한 성평등과 여성인권 성과들도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 위기, 코로나19 상황, 반여성인권적인 저항 등에 부딪혀 후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금의 위기와 지난 20년간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담기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구가 성평등 증진의 주요 촉진자라는 것,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필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5. 보수와 진보, 정파를 초월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인권과 평화를 목표로 활동해 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범여성계의 목소리를 모아 부처 설립 20년을 맞이한 '여성가족부'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통감하며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보다 강력한 집행부처'를 요구합니다. '보다 강력한 집행 부처'의 명칭에는 성차별 해소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헌법적 책무를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지난 20년 동안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은 여성에 국한된 단순한 복지정책 이상이였으며, 아동·청소년 또는 가족정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범부처 모든 정책 분야에 다양성과 인권존중, 지속가능발전의 미래 가치 실현이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였기에, 이 모든 역할과 기능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각급급 지위에서 계획, 실행, 평가 등이 가능한 제도화된 과정, 충분한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시민사회와 풀뿌리 조직들의 참여, 모든 정부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의지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생긴다 한들 이를 총괄 조정할 책임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7. 유엔과 국제 사회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성평등과 여성인권 성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성평등정책 전담기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인 정책 과제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차별 해고를 위한 정책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가 본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지위·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2022. 3월 30일  
한국YWCA연합회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한국여성단체연합

##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Stop arms race, Give peace a chance

전 세계가 전쟁을 목도하고 군사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평화에게 기회를 주자'고 다시 한번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8주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지금까지 5,381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470명은 어린이라고 합니다(4월 22일 기준).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들도 약 5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멈춰야 합니다.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가 군사비를 삭감하고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전 세계의 동료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오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2조 1,1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국가로 2013년부터 9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군사비 지출 역시 2.8%로, 10위권 국가 중에서도 높은 비율입니다.

유럽 각국과 미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분으로 국방 예산 증액과 각종 무기 도입을 공식화하여 군비 증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산 업체의 주가 역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쟁을 예방할 수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군비 경쟁을 가속하여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 구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2017년 약 40조 원이었던 국방비는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2022년 약 55조 원으로 늘어났고, 특히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개선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남북, 북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결국 북한은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였고 한반도 상황은 판문점선언 이전의 대결 국면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길체인 등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복원, 한국군 사드 배치, 한국형 아이언 돌 조기 전력화,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라는 실패한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접근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북한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며, 2021년 한국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할 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예산과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 '평화 공존'을 위해 재조정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지출하는 동안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기후 위기나 재난 대응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진화 헬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 예산의 대대적인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2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수는 심각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원을 군비 증강이 아니라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듭시다.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남북 합의 이행과 대화 재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2년 세계군축행동의 날, 전 세계 곳곳의 시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 2022년 4월 25일 2022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강정평화네트워크, 경청과 사랑 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군산평화박물관, 기독교청년회(YMC), 녹색연합, 비정규노동자지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연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연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성산환경을지키는사람들, 실천불교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녹색당,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제주풀무질, 진보 3.0,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성리수녀회, 통일나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평화바다, 평화바람,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에클레시아생명학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총 39개 단체)

### 3월 월례아침기도회

3월 월례아침기도회가 3월 2일(화) 오전 9시에 온라인으로 열렸다. 서울YWCA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상호돌봄'이라는 주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되고 있는 무고한 생명들을 위해, 온갖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다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산돌교회 김효경 목사가 요한복음 15장 1절, 5절~17절 말씀으로 '영혼의 친구'란 주제로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되었다.

### 4월 월례아침기도회

4월 월례아침기도회가 한국YWCA 100주년을 맞이하여 연대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4월 1일(금) 오전 9시 온라인(zoom)으로 개최되었다. 한국YWCA연합회 100주년 자문단 한국YM 목사가 요한복음 2장 1절-11절 말씀으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여성'이란 주제로 설교말씀을 나누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통해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YWCA가 새로운 100년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함께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2 (사)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 교육



2022년 (사)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 교육이 3월 5일 진행되었다. (사)한국YWCA연합회의 재구조화 이후 출범한 첫 법인이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 만큼 법인이사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교육들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장운재 목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의 말씀나눔으로 은혜 속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리 부유한 개인도, 평화로운 가정도, 역사가 오래된 조직도 없이 없으면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로'라는 말씀과 함께 YWCA의 열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크리스천의 위

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말씀을 해석할 때'라며 시대의 풍조에 파묻혀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성,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이사교육의 첫 번째 강의를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역할과 책무>로, 김경수 (재)빈손채움 공익경영센터 대표가 강의하였는데 이사회의 역할과 이사의 책무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했다. <한국YWCA연합회 현황 브리핑> 시간에는 우선 구정혜 상임이사가 재구조화 이후 변경된 의사결정구조와 위원회 운영, 연간 일정, (사)한국YWCA 정관과 규정 등을 브리핑했다. 이 브리핑을 통해 (사)한국YWCA연합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필수로 파악하여야 하는 현황들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회원 YWCA 재구조화와 연합회 이사회의 과제>를 박동순 조직혁신지원국장이 브리핑하였다. 한국YWCA 및 지역조직의 확대 과정과 지역법인화 진행현황, 쟁점 사례, 그리고 YWCA 재구조화 지원을 위한 연합회 이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브리핑함으로써 법인이사회가 재구조화 지원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세와 역할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 대해 2022 (사)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들은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사)한국YWCA연합회와 지역법인화 과정에 대한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법인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첫 법인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YWCA 후쿠시마 11주기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투표로 말해요 "NO핵발전 YES재생에너지"



한국YWCA연합회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쿠시마 핵사고가 남긴 교훈을 망각한 채 대책 없는 핵발전 공약을 내거는 대선후보들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주간을 열었다.

3월 2일(수)부터 8일(화)까지를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 이번 후쿠시마 11주기 탈핵기후 대선캠페인은 '투표로 말해요, "NO핵발전, YES재생에너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 35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에서는 3월 7일(월) 점심시간, 명동성당 앞에서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연합회와 서울YWCA의 활동가들

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회기도와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책 없는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의 발언으로 이슈가 되었던 SMR(소형모듈원자로), 파이로 프로세싱과 RE100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한국YWCA는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전국 52개 지역에서 8만 회원과 탈핵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28쪽)

**후쿠시마 11년 연대캠페인**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 그만”



3월 5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고, 탈핵의 길을 함께 걷는 단체들이 모여 캠페인을 열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며, 한국YWCA연합회와 남양주YWCA, 수원YWCA가 이번 캠페인에 연대하였다. 특별히 남양주YWCA 조인숙 이사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도, 경제위기의 대안도 아니”며,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52개 지역에서 8만 회원과 함께하는 한국YWCA는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지속할 것”을 이야기하며, 캠페인의 마무리 발언으로 함께하였다. 성평등 대선 정책 TF가 제시한 후속 과제는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이어서 전개될 예정이다.

**故 김갑현 명예연합위원 1주기 추모예배**



3월 31일(목) 오후 2시 한국YWCA 연합회 강당에서 김갑현 명예연합위원 1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오

미크론의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없었지만, 유가족들과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원영희 회장, 조은영 부회장, 이숙현 연합회 전 위원 등 선생님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함께 모여 추억을 나눴다. 추

모예배는 “YWCA에 부름 받은 것은 축복이요, 특권으로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고 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충성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갑현 선생님은 1972년 YWCA와 인연을 맺고 재정위원, 실행위원을 거쳐 두 차례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재임기간 중 19개 회원YWCA 창립을 이끌었으며 오늘날 52개 회원YWCA가 지역운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5년 세계YWCA 100주년 기념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YWCA 실무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김갑현 장학금’을 만드셨고 현재까지 전국의 실무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2 YWCA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22년도 YWCA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3월 21일(월),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사무총장협의회에서는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과 전국 50개 회원YWCA 사무총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서귀포Y 이신선 사무총장을 사무총장협의회 서기로 선출하였고, 사무총장협의회비 납부기준을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한국YWCA 100주년 비전선언문에 대한 제안을 받고, 창립기념일 행사 관련하여 협조 요청사항을 공지하였다. 이어 2022년 (사)한국YWCA연합회 연간일정표, 민들레넷 20종료 및 Y-Net 활용 방법, 회원YWCA 사업 운영 시 유의 사항을 공유했다. 앞으로 100주년의 한국YWCA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는 사무총장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제1차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에너지전환**

4월 6일(수) 오후 1시 30분, <제1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 기후위기대응과 지역에너지 전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2022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원YWCA의 자치적인 탈핵기후생

**전력 생산과 소비 시스템 전환 (스마트 그리드)**



명 운동의 전개와 구체적인 지역별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본 콜로키움은 RE100위원회 이유진 위원장의 강의로 시작되었으며 권역별 토론으로 이어졌다.

콜로키움에는 49개 회원YWCA 및 연합회법인이사로 구성된 94명의 2022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참여단이 참석하여 활발한 권역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콜로키움 이후 지선대응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회에서는 ‘6.1 지방선거 대응 YWCA 도협의회 정책수립 및 정책제안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각 도협의회에서는 콜로키움에서 논의한 바를 구체화하여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YWCA연합회 2022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은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와 청소년,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 전략 등을 주제로 총 다섯 차례 진행되며, 제2차 콜로키움은 5월 4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기후위기와 여성’을 주제로 한다. 콜로키움의 모든 강의는 Y-아카데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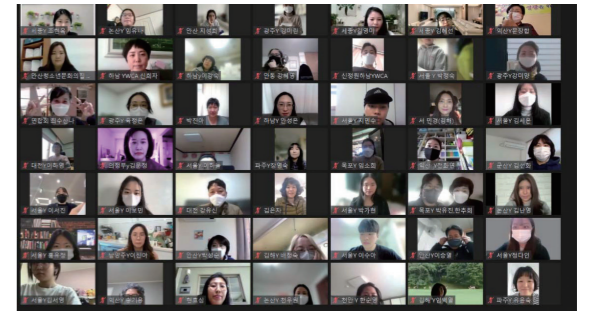
**한국YWCA 인비저닝워크숍 ‘한국YWCA 100년 비전 공작소’**

한국YWCA는 지난 100년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꿈꾸는 시간으로 2월 28일(월)부터 3월 3일(목)까지 ‘한국YWCA 인비저닝 워크숍: 100년 비전 공작소’를 개최했다. ‘고백과 성찰’, ‘Y’, ‘W’, ‘C’, ‘A’ 다섯 개의 주제별로 열린 워크숍은 조은영 부회장(기념행사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새로운 100년의 YWCA 비전을 만들어가기 원하는 연합회와 회원YWCA 자원·실무활동가 100여 명이 참여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창립정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성찰과 고백 그리고 YW.C.A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소망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미션들을 나누었다.

한편 YWCA 비전 수립에 더 많은 회원과 시민들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2월 16일(수)부터 23일(수)까지 8일간 실시한 ‘YWCA 비전 수립을 위한 키워드 설문조사’에 약 1천여 명이 참여했다. 키워드 설문결과와 비전 워크숍 결과로 정리된 ‘한국YWCA 비전문’은 이번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되었

다. 한국YWCA는 비전을 토대로 새로운 100년의 항해를 이어나갈 것이다.

**YWCA금융경제교육 강사교육**



2022 YWCA 금융경제 강사교육이 3월 8일(화) 씽크머니,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소속 강사 약 1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은 강사의 강의 역량 강화와 강의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후와 경제, 핀테크 이해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4월 7일(목)에는 3월 8일에 진행한 교육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강사가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올해에는 전국 22개 회원YWCA에서 금융경제교육(씽크머니,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계 여성의 날, 우크라이나 전쟁반대 여성평화시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3월 8일,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하여 10개 여성평화단체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촉구하는 여성평화시위를 진행하였다. 본 시위는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진행되었으며 회원

YWCA에서는 고양, 광주, 대전, 서울, 의정부, 파주YWCA가 함께 참여하였다. 시위에 앞서 성명서에 대한 온라인 연명이 진행되었고, 시위에서는 연대발언, 성명서 낭독, '연대의 깃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또한 시위 중간 중간 "전쟁 멈춰, 우크라이나와 함께"를 외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촉구하였다. 이번 시위에서는 총 6명의 연대발언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김예지 연합회 이사는 "전쟁의 아픔을 겪은 한반도 여성으로서 지켜만 볼 수 없어 거리고 나왔다"며 러시아군의 반인륜적 행위를 목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은 우크라이나YWCA 회장의 서신을 읽으며 깊은 울림이 있는 연대를 표하였다. 현재 한국YWCA연합회는 우크라이나YWCA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으며, 후속 활동으로 우크라이나의 회복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은 홈페이지 모금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30쪽)

### 성평등 대선 정책 TF 위원회 후속 모임

3월 16일 성평등 대선 정책 TF 위원회 후속 모임이 진행되었다. 후속 모임에서는 한국YWCA연합회 20대 대선 대응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대 대선 평가, 향후 전개할 운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모임에는 작년년부터 운영되어온 성평등 대선 정책 TF 김은경 위원장, 김난주 위원, 남유진 위원, 윤덕경 위원, 실무로 이한빛 간사가 참여하였다.

한국YWCA의 20대 대선 대응 활동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을 이끌어낸 점, 또한 향후 답변서가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후보자 모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낸 것과 여성노동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것이 성과로 평가되었다. 20대 대선 평가에서는 선거를 위해 '여가부 폐지'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여성을 임신/출산과 연결지어 이해하는 것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여가부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발생할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향후 성평등 정책 이슈로는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 할당제, 미디어 자료 개발,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불가, 노동 시간 안착, 젠더폭력 관련 정책 등이 제시되었다.

### 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CSW)참여

지난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기후위기, 환경, 재난위험경감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and disaster risk reduction policies



and programmes)'를 주제로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가 온라인에서 뉴욕시간에 진행되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2016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받았으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때마다 꾸준히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여해왔다.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연합회 및 회원YWCA 활동가 1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와 '여성'의 관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방안이다. 이에 대해 각 국가와 기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5월 중에 배포될 한국YWCA CSW66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참여자들이 참여한 세션 소개와 세션에서 발표된 자료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 한국YWCA연합회 여가부 폐지 관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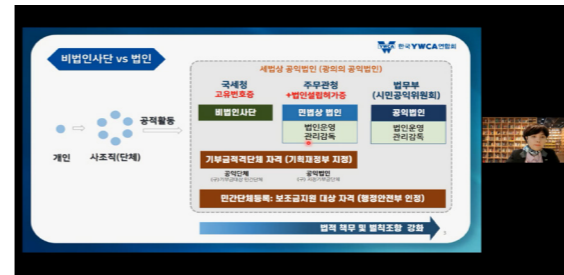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촉발된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 3월 16일(수)에 진행된 한국여성의정 초청 여성단체 간담회를 통해 범여성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필요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인수위원회 면담을 추진함과 동시에 범여성계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3월 24일(목)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3월 30일(수) 인수위원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수위원장 면담에는 한국YWCA 원영희 회장,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이 한국YWCA 대표로 참여하였다. 인수위원장 면담까지 전개된 점은 큰 의의가 있었으나, 면담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인수위원장과 면담이 보여주듯 단발성 행사로 끝날 것이 우려된 한국YWCA는 4월 2일(토) 인수위원회에 한국YWCA

의 입장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하였다. 한국YWCA는 20대 대선 정책제안 단계에서부터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후 긴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회원YWCA와 공유하기 위해 4월 4일(월) 회원YWCA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인수위원회는 범여성계 활동에 압박을 느끼고 조직개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연합회는 여성계와 연대활동을 지속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향후 한국YWCA 전국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회원Y 재구조화 맞춤형 지원교육 강화



연합회는 올해부터 회원Y 재구조화 준비 단계에서 지원하는 '회원Y 재구조화 맞춤형 지원교육'의 교육 횟수를 늘려 지원을 강화한다. 작년까지 회원Y 재구조화 맞춤형 지원교육으로 회원Y 방문교육 1-2회(재구조화 지원교육, 5개년 계획 워크숍), 1회의 재산이전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올해부터는 회원Y 방문교육 전에 실무활동가 대상 교육(온라인)을 1차로 진행한 후,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참여하는 '회원Y 방문 대면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법인신청 시기가 같은 회원Y들을 대상으로 그룹컨설팅 교육과 함께 재산이전 준비를 위한 1:1 현장지원까지 회원Y별로 총 4회 이상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추가로 교육을 요청하는 회원Y의 보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남양주Y, 의정부Y에 이어 3월과 4월 두 달간 광양Y, 속초Y, 파주Y의 실무활동가 대상 1차 교육을 진행하였고, 춘천Y의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대상 회원Y 방문교육과 동해Y 요청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회원Y 재구조화 맞춤형 지원교육 강화를 통해 회원Y 재구조화 확인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준비현황을 점검하며 재구조화 이후에도 회원Y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 제안 발표 기자회견



한국YWCA가 함께 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3월 30일(수)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제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남북·북미 합의 존중과 이행, 군비 증강과 제재가 아닌 평화와 협력의 접근, 호혜적인 평화 협력 외교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 씽크머니 협약식



한국YWCA연합회는 4월 14일(목) 오전 연합회관에서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과 '배우고 체험하는 씽크머니 금융교실'의 협약식을 개최하고, 씨티재단 후원금 약 3억원(미화 25만 달러)을 전달 받았다.

올해로 17년차를 맞이한 씽크머니 프로그램은 지난 16년 동안 58만여 명의 청소년에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금융교육을 제공해왔다. 2017년부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금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씽크머니 상설교육장인 금융생활체험공간 '뽀핀'(Public Financial education station) 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는 참가학생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Future Financial Cit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기존 교구를 비대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부모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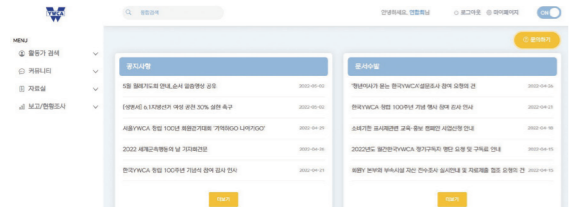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 정기총회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상반기 정기총회가 4월 14일(목)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열렸다. 전국의 15개 경제교육센터가 참여하여, 기획재정부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사업 개선 방안 발표 및 각 센터별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지역경제교육센터의 2022년 주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특별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경제역량 강화와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2021년에 센터에서 개발한 핀테크의 이해와 사례, 기후와 경제, 청소년 노동과 최저임금제 등의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교육할 예정이다.

터가 참여하여, 기획재정부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사업 개선 방안 발표 및 각 센터별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지역경제교육센터의 2022년 주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특별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경제역량 강화와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2021년에 센터에서 개발한 핀테크의 이해와 사례, 기후와 경제, 청소년 노동과 최저임금제 등의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교육할 예정이다.

Y-net(YWCA 인트라넷 사이트) 운영



지난 2월 17일자로 오픈한 'Y-net(와이넷)'은 연합회와 회원 YWCA의 정보 공유 및 소통 방식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개발된 YWCA의 새로운 인트라넷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52개 회원YWCA에서 약 300명의 실무활동가들이 가입하였으며, 연합회와 회원YWCA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메뉴를 통해 공문서 및 주요 공지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는 권역별/광역시·도별 활동 보고도 Y-net을 통해 취합한다. 연합회에서는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능들을 보완하여 회원YWCA가 새로 도입한 상용 프로그램과 더불어 Y-net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YWCA100주년 창립 기념식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4



월 20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YWCA는 지난해부터 김숙희·원영희·서다미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성찰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주제로 100주년 기념을 준비해왔으며, 엠블럼과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를 슬로건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현장에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기념식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기념식, 3부 기념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6쪽)

흥청망청 -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공모전



연합회는 100주년을 맞아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정의, 평화, 생명을 주제로 다양한 세상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은 만 14세부터 35세까지 모든 청년이다. '흥청망청' 프로젝트는 이름과 같이 청년들이 흥하도록 응원하고, 청년들이 소망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프로젝트 결과물은 에세이, 포스터, 동영상, 노래, 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 시민운동과 같은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구성, 지역 살리기와 같이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실천이 결과물이 될 수 있다. 접수는 4월부터 5월 6일(금)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5월 27일에 최종선발팀이 발표된다. 선발팀은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관련 멘토링과 후속 프로젝트 연계의 각종 특전이 제공된다.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후원현황



(2021~2022.5.2까지/약정포함/단위 : 원)

1. 100주년사업 후원

후원종류	구분	금액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	개인	138,980,000
	회원YWCA	16,350,000
	기업/단체	14,132,000
	소계	169,462,000
<b>총계</b>		<b>268,102,000</b>

후원종류	구분	금액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개인	50,440,000
	회원YWCA	17,200,000
	기업/단체	31,000,000
	소계	98,640,000

1) 개인 후원

성명	금액	비고
강교자 후원회 이사장	3,000,000	
고미연 제주YWCA 회장	2,000,000	
권오형 연합회 회계감사	1,000,000	
권혜영 새문안교회 권사	1,000,000	
김말숙 인천YWCA 증경회장	100,000	
김 미 김구재단 이사장	50,000,000	약정(화보집 제작)
김미경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100,000	
김미애 연합회 팀장	100,000	
김병찬/임정임 연합회 간사	200,000	
김성자 제천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성희 에듀플렉스 대표	100,000	
김수연 연합회 팀장	100,000	
김숙희 100주년 공동위원장	3,000,000	
김순영 순천YWCA 증경회장	100,000	
김연자 순천YWCA 증경회장	500,000	
김은경 연합회이사	1,000,000	
김은경 전 연합회 사무총장	130,000	
김자영 인천YWCA 사무총장	100,000	
김재신 연합회 감사	1,000,000	
김재화 명예연합위원	2,000,000	
김주원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50,000	
김진용 연합회 자문위원	300,000	
김태년 천안YWCA 증경회장	500,000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	200,000	
김 형 명예연합위원	3,000,000	
김형남 전주YWCA 증경회장	100,000	
노인자 인천YWCA 회장	100,000	
류인숙 제천YWCA 사무총장	200,000	
문상순 울산YWCA 증경회장	1,000,000	
박종희 의정부YWCA 증경회장	1,000,000	
박호권 한국YMCA연맹 국장	100,000	
배윤례 하남YWCA 증경회장	100,000	
백수미 속초YWCA 사무총장	50,000	
이현순 부천YWCA 사무총장	50,000	
송기영 법인법인 로고스 상임교문 변호사	300,000	
신정원 하남YWCA 사무총장	100,000	
신현채 수원YWCA 증경회장	300,000	
안재용 YMCA유지재단이사장	300,000	

2) 후원YWCA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강릉YWCA	100,000	광명YWCA	50,000
거제YWCA	300,000	광양YWCA	100,000
고양YWCA	100,000	(사) 광주YWCA	1,000,000

성명	금액	비고
연합회회장단 (원영희 조은영 이은영)	10,000,000	
오영란 연합회 전 집행위원	1,000,000	
오조너 순천YWCA 증경회장	100,000	
유성희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00,000	
이봉진,故 고의순 연합회 위원	1,000,000	
이순희 안동YWCA 회장	100,000	
이옥식 광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종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3,000,000	
이종임 연합회 전 집행위원	1,000,000	
이행자 명예연합위원	3,000,000	
이혜련 연합회 부장	100,000	
임진영 연합회 부장	100,000	
장원자 전 수원YWCA 관장	100,000	
장혜선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100,000	
장혜숙 광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주선애 연합회 증경회장	1,000,000	
전배자 강릉YWCA 증경회장	100,000	
전화성 후원회 이사	1,000,000	약정
정동신 청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정서연 연합회 팀장	100,000	
정이숙 목포Y 증경회장	1,000,000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50,000	
정진아 의정부YWCA 사무총장	100,000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사무국장	50,000	
최정숙 대구YWCA 증경회장	1,000,000	
최지영 연합회 팀장	50,000	
최만자 연합회 전 임원	3,000,000	약정
최형선 연합회 전 임원	200,000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	1,000,000	
하선규 부산Y 증경회장	1,000,000	
하행여 남양주YWCA 증경회장	100,000	
함종민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100,000	
함희경 연합회 이사	1,000,000	
홍수진 연합회 팀장	100,000	
홍인숙,故 서희진	20,000,000	
황혜숙 연합회 전 임원	10,000,000	
양서영,이예린,이은정	50,000	
<b>소계 (78명)</b>		<b>138,980,000</b>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군산YWCA	300,000	남원YWCA	1,000,000
김해YWCA	100,000	동해YWCA	500,000
남양주YWCA	100,000	마산YWCA	100,000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부산YWCA	1,000,000	안양YWCA	500,000	천안YWCA	200,000	YWCA 전국증경회장단모임	5,000,000
부천YWCA	500,000	양산YWCA	300,000	춘천YWCA	100,000	2021 경상권역협의회 회장단	100,000
(사)서울YWCA	1,000,000	(사)울산YWCA	100,000	충주YWCA	200,000	2022 경상권역협의회 회장단	1,000,000
사천YWCA	300,000	원주YWCA	100,000	통영YWCA	300,000	2022 경상권역 사무총장협의회	500,000
서천YWCA	50,000	의정부 YWCA	200,000	파주YWCA	50,000		
성남YWCA	50,000	익산YWCA	100,000	평택YWCA	100,000		
속초YWCA	100,000	계천YWCA	100,000	포항YWCA	200,000		
안동YWCA	100,000	진해YWCA	100,000	하남YWCA	100,000		
안산YWCA	100,000	창원YWCA 이사회	500,000				
<b>소계 (42곳) 16,350,000</b>							

### 3) 기업/단체

단체명	금액	비고	단체명	금액	비고
김필레션생기념사업회	5,000,000	약정	한국YMCA전국연맹	1,000,000	
국무총리실	1,000,000		한국소비자연맹(강경화)	100,000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1,000,000		한국여성단체연합(김민문정)	200,000	
소비자공익네트워크(김연화)	100,000		홍사단(박만규)	500,000	
소비자교육중앙회(주경순)	200,000		대상(주)	3,300,000	
소비자시민모임(문미란)	500,000		서울우유	1,000,000	
여성평화의교포럼	100,000		한솔사무기기	100,000	
			의류바자회수입	932,000	
<b>소계(14곳) 14,132,000</b>					

## 2. 세상을 만드는 100개의 프로젝트

### 1) 개인 후원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강난과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유태규/김경천 광주YWCA 전 사무총장	1,000,000
고미연 제주YWCA 회장	1,000,000	이숙현 연합회 전 임원	3,000,000
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	1,000,000	이유림 서울YWCA 회장	1,000,000
김경희 수원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	1,000,000
김덕순 울산YWCA 회장	1,000,000	이재홍/박동순 연합회 국장	1,000,000
김순영 전 갈리고 전국여교역자회 회장	1,000,000	이정수 소협 사무총장	100,000
김애자 목포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종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2,000,000
김영희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3,000,000	이종임 연합회 공천위원	1,000,000
김은숙 목포YWCA 전 사무총장	1,000,000	이주영 서울YWCA 증경회장	2,000,000
나은실 전 후원회 이사	1,000,000	이주영 연합회 부장	1,000,000
명진숙 은학의집 관장	1,000,000	이혜경 목포YWCA 증경회장	1,000,000
문영희 전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이희정 연합회 팀장	100,000
박경미 이화여대교수	300,000	임국이 대전YWCA 증경회장	1,000,000
박금자 강릉YWCA 증경회장, 증경회장단모임 회장	1,000,000	정 숙 안양YWCA 증경회장	100,000
박봉림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정혜순 김필레기념사업회회장	1,000,000
박용옥 사)3.1 여성동지회 회장	1,000,000	조은영 연합회 부회장	1,000,000
박윤애 연합회 이사	500,000	조은지 연합회 청년부회장	50,000
배영자 대구YWCA 증경회장	1,000,000	차경애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1,000,000
백소영 연합회 이사	1,000,000	최현자 청주Y 증경회장	1,000,000
서다미 대학·청년YWCA협의회회장	50,000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1,000,000
신현주 청주YWCA 전 관장	100,000	한영수 연합회 증경회장	1,000,000
연합회 국장(박동순,박은실,배정미,송복희,최수산나)	1,000,000	함희경 연합회 이사	1,000,000
연합회 부장(안정희,이주영,이혜련, 임진영, 홍현정)	1,000,000	홍인숙 전 퀸즈YWCA 총무	1,000,000
오경애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원영희 연합회 회장	1,000,000	박은정 신옥희 신정아 윤세영 이예린 유예랑 유육진 유정연 최경선 황미선	140,000
유도희 여수YWCA 증경회장	1,000,000		
유성희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b>소계 (69명) 50,300,000</b>			

### 2) 후원YWCA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논산YWCA	100,000	(사)세종YWCA	1,200,000	(사)전주YWCA	1,000,000	(사)청주YWCA	1,000,000
(사)대구YWCA	1,000,000	(사)수원YWCA	1,000,000	(사)제주YWCA	1,000,000	은학의집	1,000,000
(사)대전YWCA	1,500,000	(사)순천YWCA	1,000,000	진주YWCA	1,000,000	2019 5부지역위원장	1,000,000
(사)목포YWCA	1,000,000	(사)여수YWCA	1,000,000	진해YWCA	1,000,000		
(사)서귀포YWCA	1,000,000	(사)인천YWCA	400,000	창원YWCA	1,000,000		
<b>소계 (18곳) 17,200,000</b>							

### 3) 기업/단체

단체명	금액	비고	단체명	금액	비고
한국부인회총본부(남인숙)	100,000		대한기독교서회	1,000,000	약정
한국소비자교육원	100,000		동서식품(주)	1,000,000	
CJ제일제당	1,000,000		롯데제과(주)	1,000,000	
(주)NS홈쇼핑	5,000,000		매일유업(주)	500,000	
(주)SPC	1,000,000		사회혁신기업 더함	1,000,000	
(주)오뚜기	1,100,000		삼성전자	1,000,000	
릭스나인(주)	5,000,000		(주)아모레퍼시픽	2,000,000	
농심	1,000,000	약정	한국야쿠르트	1,000,000	
농협 명동지점	200,000		홈플러스(주)	5,000,000	
네이버	3,000,000	약정	<b>소계 (19곳) 31,000,000</b>		

##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한 한국 YWCA 모금

(2022. 4. 1 ~ 4.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 기부	강규희, 강병일, 강하자, 강희경, 고문희, 고복순, 구정혜, 권정자, 김동경, 김미애, 김선희, 김성희, 김수연, 김애자, 김윤희, 김은영, 김혜경, 김혜진, 민경미, 민진옥, 박경진, 박금자, 박미라, 박소진, 박윤애, 박희경, 배유미, 성지영, 손희연, 신미송, 신옥희, 신정원, 안경자, 안영옥, 안보유화, 엄금자, 엄봉순, 오제진, 옥경진, 우영숙, 원순자, 유선혜, 유순규, 유영주, 유혜미, 윤수정, 이강희, 이광실, 이미경, 이보은, 이복경, 이성희, 이순길, 이순자, 이순호, 이신애, 이은영, 이정숙, 이주영, 이지윤, 이한빛, 이희경, 임영미, 임은선, 임현숙, 임현숙, 장현옥, 전민옥, 전배자, 정상숙, 정지선, 정혜진, 조광현, 조봉자, 조은영, 최돈수, 최우용, 최은숙, 최현정, 한은혜, 홍수진, 홍옥순, 홍현정	2,365,000
회원YWCA 및 단체	논산YWCA, 늘푸른재가복지센터, 대전YWCA, 양산YWCA, 연세플러스비노기과, 예수비전교회, 전주YWCA, 진주YWCA, 청주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할렐루야교회	9,303,000
<b>합 계</b>		<b>11,668,000</b>

##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2. 1. 1 ~ 2022. 4. 28)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 기부	고이나, 구정혜, 김형남, 돌람수렌 박은실, 김병찬/임정임, 신성균, 배정미, 안정희, 안혜숙, 이숙현, 조은영	650,000
<b>합 계</b>		<b>650,000</b>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2.1.1 ~ 4.28)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CMS 및 입금분)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형희,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척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봉식, 문상순, 문윤희,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솔, 백혜진, 손정원, 송복희, 신명자, 신인숙,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영미, 이영숙, 이에림,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화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인혜, 정지유, 조성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6,515,000
회원YWCA	광주YWCA, 양산YWCA, 익산YWCA, 창원YWCA, 청주YWCA, 포항YWCA	372,220
교회	한양대여성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520,000
<b>합 계</b>		<b>7,407,220</b>
<b>누 계</b>		<b>7,407,220</b>

## 경인·강원권역

### 강릉YWCA

양은서 간사

#### 새봄맞이 우리떡 만들기



강릉YWCA는 지난 3월 22일(화) 오후 2시 30분에 Y-DAY(1차)를 맞아 새봄맞이 우리떡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새봄을 맞아 우리쌀로 만든 여러 종류의 떡을 만들었다. 18명 정도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함께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회원들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동해YWCA

정미숙 팀장

#### 탈핵기후 대선 캠페인



동해YWCA는 3월 7일(월) 동해YWCA 앞에서 후쿠시마 11주기를 맞아 탈핵기후 대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YWCA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동해YWCA에서는 탈핵 의지를 다짐하며 대선후보와 시민사회에 RE100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 이사·위원연구모임



서울YWCA는 3월 31일(목) 줌에서 이사·위원연구모임을 열었다. 이는 '창립 100년 YWCA 운동찾기' 특강으로, 기독교와 생명운동을 뜻하는 C에 주목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살펴봤다. 안운주 교수(건국대 환경보건과학, 생태독성학자)는 <환경위기 속 환경불평등,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인권과 평화 위기까지 초래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구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꼽고, 서울YWCA가 생태계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류인 '호모 에코시스템무스(Homo ecosystemus)'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청했다.

### 속초YWCA

백수미 팀장

#### 영랑호 주변 쓰레기줍기 플로깅



속초YWCA는 3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랑호 주변에서 플로깅을 실시했다. 호수 주변과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아 영랑동 소방서에서 조정경기장까지만 진행하게 되었다. 수거된 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였고,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담았던 가방은 속초YWCA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만든 가방이었기에 장갑과 함께 세척하여 재사용하기로 하였다. 속초YWCA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속초YWCA 활동가 및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플로깅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사)인천YWCA

최고은 간사

#### 온라인 대선캠페인 시민발언대 50인 인터뷰 '이제는 인천!'



(사)인천YWCA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월 22일(화)부터 3월 9일(수)까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함께 온라인 대선캠페인 '응답하라! 2022'를 진행했다. 인천 주권 찾기 시민 발언대 50인의 인터뷰를 담아 '응답하라 2022' 게더타운과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으며, 인천 시민들의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공명 선거와 올바른 정책 선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세상에 목소리를 냈다.

## 경기권역

###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고양시 성평등정책 강화요구 기자회견



고양YWCA는 3월 29일(화) 2시 고양시의회 앞에서 고양여성민우회와 함께 고양시 성평등 정책 강화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양시의원, 성평등위원, 고양시민들이 참여했다. 고양YWCA는 새정부 출범에 앞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공언하며 여가부 폐지를 전면으로 내세운 당선인의 공약에 우려를 표명하고 젠더갈등을 이용한 정치적 선택을 규탄했다. 또한 고양시의 성평등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내며 폐지가 아

닌 독립부서로서 현재보다 더 강력한 성평등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 광명YWCA

박문경 총장

####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 페미니즘



광명YWCA는 3월 4일(금) 오전 광명시민회관 앞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114주년을 기념하는 광명여성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는 '돌봄·연대·정의,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을 마친 후 광명시민회관에서 철산역까지 성평등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며 보라색 꽃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세계여성의 날을 알리고, 축하하였다.

###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 후쿠시마 핵사고 11주년 집회



남양주YWCA는 3월 5일(토) 후쿠시마 핵사고 11주년을 앞두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 그만-대책없는 핵폐기물,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대선 후보를 포함해 각 단체에서 8명의 발언자가 나와서 핵 발전의 위험성과 탈원전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대학로 일대를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우리가 거리에 나온 이유를 시민에게 알리고 '핵발전소 이제 그만' 등 구호를 외쳤다.

**부천YWCA** 유예은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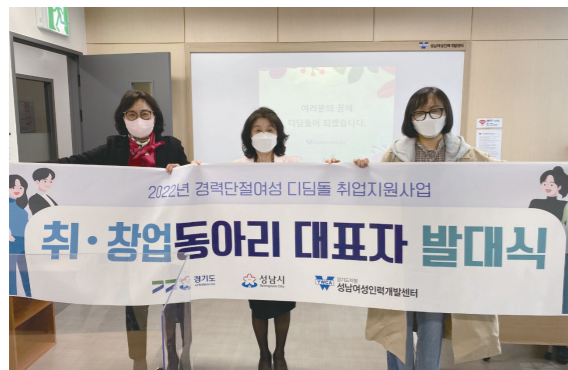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



부천YWCA는 부천시 지정 유해환경감시단으로서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단원을 배로 늘렸으며, 단원의 구성을 YWCA 회원뿐 아니라 해당 활동에 관심이 있는 비회원 및 이사단까지로 확대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정기적인 오프라인 계도활동과 온라인 자조모임이 함께 진행된다. 단원들은 오프라인 계도활동을 통해 부천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동네로 흩어져 활동하게 되며, 온라인 자조모임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 공유할 계획이다.

**성남YWCA** 김지혜 주임

**성남YWCA 기후리더**



성남YWCA에서는 '기후위기대응 실천모임'을 위해 성남여성 인력개발센터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했다. 이 모임은 팀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하고, 현재는 '강사형 동아리(11명)'로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위기대응 실천모임'은 4월중 OT를 시작으로 성남시 내에서 환경교육 진행을 통해 '기후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사)수원YWCA** 강은진 주임

**방과후 교실, 우리동네 와플학당 개강**



(사)수원YWCA는 3월 2일(수) 수원시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와플학당'을 개강하였다. 해당 사업은 마을 중심의 '경기미래형 돌봄교실'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된다. '와플학당'은 'Y에서 세상을 PLAY하자'라는 뜻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Y'안에서 책임감 있는 미래세대의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1-2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과제 및 학습지도, 신체 및 경제교육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원은 25명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마을 인적 자원과 유관 기관을 연계한 안전한 돌봄망을 구축하여 인근 학교 돌봄 수요에 충족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만족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안양YWCA** 문찬미 간사

**3.8 여성평화 통합 캠페인**



(사)안양YWCA는 3월 11일(금) 2시 범계역 2번 출구 앞 로데오 거리 입구에서 38여성평화 통합캠페인을 진행했다. 본부와 부속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 안양시성문화센터의 실무자, 강사, 위원 20여 명이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 우크라이나 전

쟁반대 캠페인, 여성폭력근절 및 예방 캠페인, 폭력피해지원 및 예방 활동 기관 소개, 연계 안내를 진행했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후쿠시마 11주기 탈핵기후 대선 캠페인**



의정부YWCA는 3월 4일(금) 홈플러스 일대에서 후쿠시마 11주기 전국YWCA 동시다발 탈핵기후 대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하자는 뜻을 담은 성명서 낭독과 "NO 핵발전, YES 재생에너지"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진행,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실무자 및 회원 10여명이 함께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핵발전에 대한 현재 이슈와 문제점 등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 현장에 설치된 거대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남YWCA** 김유진 간사

**후쿠시마 11주기 탈핵기후 대선 캠페인**



하남YWCA는 지난 3월 4일(금), 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를 맞아 회관 앞에서 동시다발 탈핵기후 대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남YWCA는 투표관을 만들어 핵발전 반대 운동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와 핵발전을 반대하는 캠페인 문구 피켓을 만들어 11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가 남긴 교훈을 한 번 더 생

각하며 탈핵 캠페인을 진행했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주임

**논산YWCA 법인창립(발기인)총회**



논산YWCA는 3월 16일(수), 사단법인으로 창립총회를 열었다.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의 격려사로 시작해, 이사, 실무자로 꾸러진 5명의 중창으로 개회 예배를 마친후 정관(안) 외 8개 의안으로 진행됐다. 사단법인으로서 자치성,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 할 것을 다짐하는 창립 기념 식수(동백꽃)를 심었고, 단체사진 촬영으로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운동조직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대전YWCA 상임위원회 활성화 워크숍**



대전YWCA에서는 4월 1일(금) 오후 3시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진행했다. 대전YWCA 4층 강당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법을 강구하였다. 행사에서는 코로

나19 이후를 위한 재정비, 위원 영입과 활동위원의 참여 독려, 위원별 공감대 형성으로 소속감을 강조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세종YWCA** 양유정 간사

**‘리숨 워십’ 세종시 청(소)년 연합찬양예배**



세종YWCA 청소년위원회는 3월 31일(목) 저녁 8시 조치원성결교회에서 제1차 ‘리숨 워십’ 세종시 청(소)년 연합찬양예배를 진행했다. 리숨이 개최한 첫 찬양예배는 세종 및 청주지역의 청소년, 청년 40여 명이 참여했다. 리숨 워십은 매일 마지막 주 목요일 8시 세종시 내 교회를 순회하며 연합찬양예배를 개최할 예정이다. 리숨(resume)은 ‘재개되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코로나로 멈춰선 예배들이 다시 영적인 숨을 쉬며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세계여성의 날 캠페인**



제천YWCA에서는 3월 8일(화)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회원들에게 세계여성의 날 의미를 알렸다. 각 회원들은 직장 혹은 가정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평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제천YWCA는 전쟁 중단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파켓을 준비해 우크라이나 무력 침략 중단과 평화 회복을 기원하며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했다.

**천안YWCA** 각효정 팀장

**후쿠시마 11주기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천안YWCA는 3월 7일(월) 이마트 천안점 정문에서 후쿠시마 11주기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NO핵발전, YES재생에너지”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최기도와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천안시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캠페인에서는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우리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에너지도 민주주의 영역으로 여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이 스스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청주YWCA** 한기연 간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청주YWCA는 3월 31일(목) 충북여성공동행동과 함께 국민의힘 충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 충북도당앞에서도 ‘여성가족부를 지켜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YWCA** 김성화 간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운동**



충주YWCA는 3월 31일(목)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앞(15시)과 민주당 충북도당 앞(16시)에서 충북여성공동행동 회원들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및 성평등 추진체계강화’를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YWCA충북협의회 외 60여개 단체가 연대한 충북여성공동행동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국 사회 성차별 현실을 직시,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강화를 통한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무고죄 강화가 아닌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막아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역할과 임무완수를 요구했다.

**경상권역**

**거제YWCA** 김의향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거제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4월 24일(목) 하교 시간에 맞추어 아주동 일대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강화 캠페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와 함께 진행하였다. 아주동 일대는 거제중·고등학교 정문 및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업종변경 및 개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30여명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월1회 이상 학교주변 및 번화가 노래방과 PC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흡연과 음주, 거리배회 등 청소년 일탈 행위를 감시 순찰하고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에 대한 업주와 시민의 자발적인 청소년 보호의식 확대와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 해반천 플로깅**



김해YWCA는 3월 22일(화) 오후 2시 김해 해반천 상류에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함께 유엔이 제정하여 선포한 ‘세계 물의 날’ 기념 EM 투하 및 해반천 플로깅을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플로깅을 시작하기 전, 해반천 수질 개선을 위해 EM 활성액을 상류에서 투하하였으며, 이후 양 기관의 참여자 30여 명이 상류에서 중류까지 쓰레기를 주우며 내려갔다. 이번 행사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으로 주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대구YWCA** 김은혜 간사

**후쿠시마 11주기 탈핵 촉구 기자회견**



(사)대구YWCA는 3월 11일(금) 오전 11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1주기를 맞아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의 일원으로서 국민의힘 대구경북도당 사무실 앞에서 탈핵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탈핵을 촉구하기 위한 발언과 퍼포먼스, 노래 공연,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구YWCA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핵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핵발전소를 폐기할 것을 강조했다.

**마산YWCA** 강현영 간사

**전기사용량 10% 줄이기 운동**



마산YWCA는 3월 30일(수) 오후 2시,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창원무동 센텀파라디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2022년 에너지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에너지 절약 100만 가구 운동 2.0’ 사업에서 진행되는 ‘전기 사용량 10%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 내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후 마산YWCA는 가정별 전기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과 에너지 절약 체험활동 및 교육을 진행한다.

**부산YWCA** 최수정 간사

**부산광역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부산YWCA는 3월 25일(금) 오후 5시, 부산YWCA 일한실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모니터링 3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진행했다. 발대식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교육, 감시단의 역할 안내, 모니터링 구역을 배정했다. 부산YWCA는 한 해 동안 부산시 전역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방문 및 계도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천YWCA** 송주은 간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1인 시위 및 로타리 피켓팅**



사천YWCA는 3월 31일(목) 사천여성회 및 사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지역 하영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남 여성·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문을 전달했고, 사천시민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알리기 위해 삼천포 로타리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을 추진한 여성·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오늘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들에게 지역의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묻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양산YWCA** 김유경 간사

**후쿠시마 11주기 탈핵 캠페인**



양산YWCA는 3월 4일(금) 후쿠시마 11주기를 맞아 ‘투표로 말해요! NO 핵발전, YES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양산역 공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후쿠시마 핵사고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은 핵 발전보다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에 마음을 모았다. 양산

YWCA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과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 RE100에 관해서도 알릴 것이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위기 청소년 및 다문화(이주 배경) 청소년 장학기금 전달식**



(사)울산YWCA는 2월 22일(화), 울산YWCA 2층강당에서 위기 청소년 및 다문화(이주 배경) 청소년 장학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사)울산YWCA는 장학사업 일환으로 삼호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을 위한 장학기금 금 2,000,000원(금이백만원정)을 기탁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발하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뜻을 전하였으며 해당 장학금은 총 7명의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진주YWCA** 김은주 팀장

**소비자 상담가양성과정**



진주YWCA는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1372 소비자상담실에서 2022 소비자상담가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배경의 소비환경에서 거대한 변화와 흐름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

도록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진주YWCA 1372 소비자상담실은 양성과정을 수료한 10여 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윤리적 소비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진해YWCA** 서지원 간사

**3.8 여성의날 기념활동**



진해YWCA는 3월 8일(화)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교육프로그램 위원회 주관으로, 탈핵 이후 생명 운동 동참을 위한 20대 대선 선거 대응 활동 관련 거리 캠페인과 함께 진해YWCA 사무실 근처 시민들에게 빵과 장미를 나누어 주었다. 저녁에는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주의 영화 상영과 토론회를 했다. 110년 전 여성의 노동권과 참정권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던 절박함과 여성 폭력, 성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운동사를 재조명해 보는 활동은 대선 전날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창원YWCA** 정지윤 간사

**취약계층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사전교육**



창원YWCA는 3월 25일(금) 오후 2시부터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20명의 정리수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서 컨설팅 표준화라는 주제로 이항림 강사의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서비스는 한부모 가정 또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 150가구를 대상으로

로 하며,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집안을 정리해줌으로써 취약계층 가정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통영YWCA** 변은실 과장  
재구조화 워크샵



통영YWCA는 3월 3일(목) 오전 10시 재구조화 워크샵을 가졌다. 이사, 본부 실무자, 부속시설장이 한자리에 모여 통영YWCA 5개년 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YWCA중점운동을 어떻게 실천 해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영YWCA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운동을 위해 통영YWCA 현재의 모습을 직면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과 강점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기도회 및 규탄대회



포항YWCA는 3월 29일(화) 포항YWCA 강당에서 포항기독교시민단체와 함께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서 3월 31일(목)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다페스트 조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반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 전라·제주권역

**광양YWCA** 이효진 주임

광양푸드뱅크



광양YWCA는 광양푸드뱅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광양푸드뱅크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29곳의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 170명과 기부식품 등이 필요한 지역 내 시설과 단체 44곳에 기부식품을 제공한다. 2월에는 지역 내 기부업체인 (주)비엘 빅팜식자재마트와 주식회사 엠앤에스에서 2,100여만 원의 식품을 기부하여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 공동체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광주YWCA** 서정현 부장

“NO 핵발전 YES 재생에너지” 탈핵기후대선크ampaign



광주YWCA는 3월 3일(목)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후쿠시마 11주기를 맞아 탈핵기후대선크ampaign을 진행했다. 광주YWCA는 회원들과 함께 탈핵 의지를 다짐하며 대선후보와 시민사회에 RE-100을 촉구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며, 대선후보들에게 기후 위기 및 경제위기의 대안이 핵발전이 될 수 없음을 알리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

양 방류 결정 및 국내 핵발전소 당면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환기시켜, 투표의 중요성뿐 아니라 각 후보들의 공약을 재고하는 바른 투표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군산YWCA 2022년 신입 실무자 교육



군산YWCA에서는 3월 2일(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부속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 6명을 대상으로 신입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군산YWCA는 이번 신입실무자 교육을 통해 YWCA목적과 정체성, 구조를 이해하고 실무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남원YWCA** 박희정 간사

세계여성의 날-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거리행진



남원YWCA는 3월 8일(화) 오후 2시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 여성의 날,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여성평화 시위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남원YWCA는 지역 시민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평화를 무너뜨리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절

대 용납될 수 없음을 알리고, 러시아의 모든 침략 행위와 군사적 행동을 규탄하는 거리행진을 실시했다.

**(사)목포YWCA** 김혜림 간사

We can!!-지구야 아파하지 마!



(사)목포YWCA꿈나무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으로 아동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꿈나무지역아동센터 19명의 아동들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We can!!-지구야 아파하지 마!’ 라는 주제로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식과 참여의식을 갖게 하고, 플로깅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천아트로 마스크, 예코백, 티슈케이스 등 환경의식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 작품전시회와 정성껏 만든 마스크를 목포시 노인복지관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사단법인 서귀포YWCA 창립총회 개최



서귀포YWCA는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법인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립 사단법인

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1992년 6월 26일 창립 30주년을 맞은 서귀포YWCA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 서귀포YWCA회관 2층 강당에서 발기인 및 회원 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 서귀포YWCA 전환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서귀포YWCA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지부로서 여성의 사회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청소년활동 및 보호, 환경운동 등 시민사회운동,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인권향상, 돌봄과 나눔의 가치로 정의, 평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해 왔다. 창립총회에서는 법인 설립 취지 채택, 정관심의,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이 이뤄졌다. 서귀포YWCA는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재정비함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투명성과 책무성과, 자치성을 가진 지역운동조직으로 정의, 평화, 생명세상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사)순천YWCA** 신정옥 간사  
3.8세계여성의날 제12회 전남여성 대회 참가



순천YWCA는 3월 8일(화) 전남도청 앞 남악 중앙공원에서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제12회 전남여성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Break the Bias# 편견을 깨라! 라는 주제로 전남YWCA협의회 외 5개 단체가 참여했다. 1980년 광주 5월을 기억하고,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며 11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 여성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전남에서, 지역에서, 여성, 청년여성, 여성장애인 등 각계 각층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생활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여수YWCA** 서하람 간사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걷기대회

(사)여수YWCA에서는 3월 18일(금)부터 3월 28일(월)까지 여수 시민을 대상으로 '3.8 세계 여성의날'을 기념해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본 캠페인은 7000걸음 (약3.8km)를 걷고, 보라색 아이

템과 함께 인증샷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개됐다. 한 참가자는 “‘빵과 장미를 달라’던 1908년 선배 여성들의 그 외침이 여전히 어색하지도 생소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참 슬프다. 부디 제 딸은 이 외침들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딸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익산YWCA는 3월 22일(화) 2022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신규 단원들에게 감시단증을 수여했고 익산YWCA 이진주 대학·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단원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진주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자양분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밝고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도해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건전한 인격·유능한 자질·진취적 기상의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사)전주YWCA** 손예지 간사  
40일 탄소금식



전주YWCA는 3월 2일(수)부터 사순절 캠페인 ‘지구와 이웃을 돌보는 40일 탄소금식’을 진행하고 있다. 7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주간별로 7가지의 탄소금식 주제를 선정하여 기후위기 증인되기, 전기 사용량 줄이기, 자연과 교감하기, 음식 남김 제로 등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 금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천한다. 또한 참여 회원들을 ‘기후선교사로 파송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실천 공유와 소감 나눔 등 지속적으로 기후운동에 앞장서는 탈핵기후생명운동 주체자로 세우고자 한다.

**(사)제주YWCA** 박슬기 간사  
여성평화캠페인



제주YWCA는 3월 8일(화) 서귀포YWCA와 함께 제주도협의회 차원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대선 정책 제안 및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여성평화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여성분야 아젠다 선언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문 낭독,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여성 평화지지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YWCA제주도협의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인권 향상을 위한 시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선언했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한국YWCA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우표>가 3월 2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되었다. 우표 발행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180개 우체국에서 기념우표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의 구입이 이어졌다. 연합회에서는 한국YWCA 100년 역사를 연대별로 설치하고 우표 20장 세트를 넣어 보관할 수 있는 기념우표첩을 1000세트 한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기념우표만 구입을 원할 경우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기념 봉투와 엽서타입의 맥스멈카드도 구매 가능하다.

(문의: 100주년팀 안정희 02-6952-4774)





## 사탕수수에겐 참 미안한 이야기

사탕수수야, 건강한 땅에서 햇빛 먹고 바람 마시며 자란  
 네가 내 원료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  
 내 감칠맛은 너를 꼬박 마흔 시간 동안 발효해서  
 얻은 맛이라는 것도 말이지. 그래, 생각이라는 걸 쉽게  
 바꿀 순 없겠지. 하지만 난 믿어. 맛을 위해, 건강을 위해  
 진심을 다하다 보면 오해는 조금씩 풀릴 거라고.  
 더 많은 식탁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야.

사탕수수를 발효하여 만든 발효미원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 자격

전 국민 누구나

### 신고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 **내방·우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지역본부
  - ※ **담당자 방문 접수**: 인터넷·우편·내방 접수가 어려운 경우

### 상담전화

1577-1000

### 포상금

- 내부 종사자 **최대 2억 원**, 수급자 가족 등 기타 일반인 **최대 500만 원**  
 (신고 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  
 ※ 익명신고 및 공모(가담자)시 포상금 제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신분보호·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당청구 신고로 재정 누수 방지에 동참해주세요





#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사천	055.833.2344	(사)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사)서귀포	064.762.1400	(사)전주	063.224.5501
(사)고양	031.919.4040	(사)서울	02.3705.6000	(사)제주	064.711.8322
광명	02.895.1966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양	061.762.0012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사)광주	062.609.1300	(사)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사)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사)순천	061.744.7990	(사)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사)논산	041.736.7393	(사)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사)대구	053.652.0070	(사)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사)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사)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사)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사)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